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부터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범죄한 인생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누구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며 공평하게 행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되다 로마서 10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8월 19일 (토) 제 164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증오 편견 없애는 복음 진리 전할 때다!

미 언론, 샬러츠빌 테러사태는 “트럼프 믿고 준동하는 백인 민족주의 때문” 규정

북한 김정연과 막말 논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승자박의 뒷에 걸렸다. 바로 지난 12일,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남북연합 기념물 철거에 반대하는 백인우월주의 자들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맞서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도 백인우월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따라서 인종차별을 둘러싼 미국 사회 내 첨예한 갈등과 마찰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로 촉발된 유혈사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한 입장이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독설 주의자로 잘 알려진 그가 사태의 책임을 ‘여러 편(many sides)’으로 분산시킨 것이 사실상 인종차별을 목인한 것이라는 논란이다.

미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바로 백인우월주의자 또는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시위가 지난 11일 샬러츠빌의 버지니아대에 햇살을 든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주말인 이날 이면서페이스이션 파크로 시위자들이 더 모였고, 한때 최대 6000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유나이티드 더 라이트(Unite the Right)’라는 제목의 집회를 위해 이면서페이스이션 파크에 모여든 시위대들은 나치 상징 깃발을 흔들다가 하면, 인종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나치의 ‘피와 영토’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속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다양성은 집단 사기” 등 인종주의적 구호가 이어졌다. 시위대 중에는 극단적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KKK) 휘장을 들거나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이들도 있었다. 시위대에는 극우·극우주의자, 대안우파 지지자들도 섞여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샬러츠빌에서 대대적인 폭력 시위를 벌인 ‘백인 민족주의(White Nationalism)’ 세력은 그 뿌리가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가 남북전쟁 때 남북연합의 영웅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 결정에 항의해 벌어진 것에서도 이런 역사가 드러난다.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부 백인 세력 사이에서는 여전히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인종주의가 남아 백인우월주의로 발전했다. 샬러츠빌 시위에도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클럭스클랜’이 대표적이다. 이런 인종주의는 연방정부를 부정하는 극우주의 조류와도 결합했다. 연방정부는 북부의 상공업자 ‘양키’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배하려는 도구라는 주장이다.



12일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백인민족주의자 제임스 앨릭스 필즈가 몰고 돌진한 차량에 반대 시위자들이 나동그라지고 있다(AP).

인종주의와 극우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미국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왔다. 1995년 오클라호마시터의 연방청사 폭탄테러를 저지른 티머시 맥베이는 ‘연방정부는 악’이라는 확신을 가진 극우주의를 지나라하게 드러냈다. 맥베이는 미국 연방정부와 유엔이 미국을 해체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도구라고 본다.

소외된 백인 중·하류층 사이에서 잔존하던 인종주의와 극우주의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조류 속에서 반세계화 정서와 결합되며 발전했다. 전통적 인종주의 및 극우주의가 세계화는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좌파 진영의 반세계화 논리를 차용해 소외된 백인 주민들을 파고들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이 주로 위치한 중·남부 내륙 지방 백인들의 소외와 불만이 자양분이 됐다.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연한 정치·사회 운동을 벌이는데 주류인 백인도 그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백인 민족주의’의 핵심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이 주로 위치한 중·남부 내륙 지방 백인들의 소외와 불만이 자양분이 됐다.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연한 정치·사회 운동을 벌이는데 주류인 백인도 그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백인 민족주의’의 핵심이다.

(3면으로 계속)

65세, 이제 노인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선진국 고령 기준 65세 조정 원인 밝혀

대부분 선진국에서 노년의 시작은 65세다. 일에서 은퇴하고, 대중교통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65세다. 65세 이상 집단이 노동 인구 집단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정책입안자들은 의료보험과 연금에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게 된다.

21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고령 인구와 노동 인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령자 부양 비율”은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실버 쓰나미(silver tsunami)”로 모두가 파산할 거라고 예측하는 비관주의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고령의 시작이 65세라는 전제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조정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Why 65-year-olds aren't old: It is time to acknowledge a new stage, between working age and being old).

1880년대 프러시아 연금제도 시작 당시 65세 적용 21세기말 고령자 부양비율 3배... ‘실버 쓰나미’ 예측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단어 “old”를 “오래 산(having lived for a long tim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늙은 남자가 쿠션에 기대어 누워있다(the old man lay propped up on cushions)”라는 예문이 함께 실려 있다. 1880년대 프러시아에서 연금 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65세 이상에게 이 제도를 적용했던 것은 합당한 조치였다. 65세를

넘겨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65세 “노인”들은 아주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71세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인물이지만 “늙었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부(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p>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창 송중록 목사 13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 임지석 목사 16면
-------------------------------	---------------------------------------	-------------------------------------	-----------------------------------	--

너 진짜 목사나

신앙의 확신을 주는 책!

나의 하나님여! 이 책을 주께 드리나이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자 손형식
 *대광고등학교
 *한양공대 산업공학(R.O.T.C 4기)
 *미 남침례신학교(M.Div. 센터기)
 *음악사역(가네기울, NBC, TV-4, 케네디센터)
 *성경공부 전문교사
 *개혁교회 세미나 주 강사
 *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24개 질문 개신교 측 대담자
 *KCC 북한인권 워싱턴 지역 간사
 *현 워싱턴 필그림교회 개척 및 담임목사

1부 너 진짜 목사나?
 1. 책을 사다
 2. 열치를 사다
 3. 월정에 가다(돌아오지 않는 기차역!)
 4. 산정호수에 가다
 5. 사랑의 교회에 가다!
 6. 친구 부부가 구원 받다
 7. 좋은 말 할 때 나와!
 8. 오라토리리오와 4대 신앙
 9. 너 진짜 목사나?
 10. 소대장을 따라라!
 11.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가?

2부 설마 지옥에야 가겠어요?
 1. 한국, 미국, 천국의 관리들
 2. 사도 바울의 팔자와 나의 십계명
 3. 누가 기독교를 종교라 하는가?
 4.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5. 설마 지옥에야 가겠어요?
 6.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인가?
 7. 기독교 복음과 인류의 역사 발전
 8. 와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세워지다
 9. 하나님도 농담하시는가?
 10. 인간의 자유의지와 복음, 그리고 사탄의 공격!
 11. 인생을 성공시키는 '5C'
 12. 주여! 한국의 위기, 어쩔 줄 모르!
 13. 왜 하체를 가렸나요

3부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나를 가만뒀어요?
 1. 천국 순례자들의 믿음과 고백
 2. 과연 천국이 있는가? 과연 천국에 가겠는가?
 3. 기우사 학교에 가다
 4. 부활이 정말 있었어요? 다 써서 없어졌는데요!
 5. 요리사가 될 뻔하다가 목사가 되다
 6. 임박한 재림, 울어라! 울었다!
 7.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믿음과 삶의 원칙
 8.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나를 가만뒀어요?
 9. 그 바위 위에 서라! 바위틈에 있으라!
 10.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11. 목회에 도움을 주는 함축된 용어들

독 / 후 / 감
 와우!!!
 축축히 적셔 주는 성령의 탄피! 사막에 오아시스!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감동!!! 나를 오랜 세월...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 지옥 같은 시절-동시남북 북 막혀 눈물 콧물 다 짜내던 그때에 열린 곳 하늘밖에 없어 무작정 매달렸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늘 답답하게 짓눌렸었지요. 성경 10년 이상 통독하고 성경66권을 4년 동안 다 기록을 했어도 워낙 신학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책 한권이 단번에 깨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목사님 참 대단하세요.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뛰는 심장소리! 박진 감동!! 제 평생 영적 지팡이로 의지하며 약해질 때마다 보고 또 보고... 새 힘내서 영혼의 노후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남편도 그리 함께하기를 늘 기도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 집사)

손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책 얼마나 감사한지. 애독하며 마음에 새겼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기만 했던 허다한 영적 안개와 같은 의문들... 시원하게 대답을 얻고 정리되어 갑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서.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도 드림)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책 조금 전에 잘 받았습니디. 책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1부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내내 목사님이 고민 하시던 목사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감독사)

책 주문처
갈렘미션 (개혁교회 및 선교미션)
 이메일주문: hyongsohn@hotmail.com
 전화주문: 571-334-3445
위성된 필그림교회
 4925 Twinbrook Rd, Burke, VA 22015
 TEL. 703-978-1600
판매가: \$20 (개혁 교회 및 선교미션 지원금)



시론

휴가의 계절에...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매년 여름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1,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의 82.6%가 여름휴가를 갈 계획인 것으로 나왔으며 문화관광부의 자료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휴가 지출비는 17만7천원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대략 1인당 1,000여불, 4인 기준 가정 약 4,000불 정도를 휴가비로 지출함으로써 자신을 수입의 5-7%를 정도로 여름휴가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점점 더 휴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교회도 서서히 이민 1.5-2세 혹은 3세대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서 아니라 휴가 그 자체를 삶의 한 부분으로 주변에서 보고 느끼며 자란 문화적인 배경 덕분에 이들 대부분이 매년 휴가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알찬 휴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휴가를 통한 쉬는 가지면서 조용히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쉬는 창조 후 하나님께서 가지신 쉬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쉬는 가지신 다음 피조물인 인간에게 쉬는 시간, 곧 안식의 시간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사건을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 후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쉬가 죄악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그렇게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쉬! 바로 이것이 여름휴가든 겨울휴가든 관계없이 우리의 휴가를 진정한 참된 휴가로 만들어 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아울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쉬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해 본다면 정말 가치 있는 휴가와 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휴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영적인 휴가와 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같이 휴가에 나온 이들에게 이런 진정한 휴가와 쉬의 길을 나눌 수 있는 휴가가 된다면 평생에 남을 휴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이 되기보다는 휴가지에서 망가지고 깨진 모습의 낙오자가 되어 집과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희와 음식이 넘쳐나는 휴가지에서 영적인 빈곤을 발견하고 그 빈 곳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휴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 것도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메어진 사람을 풀어주는 날이 안식일임을 말씀 보여 주셨습니까(눅13:16). 넘쳐나는 음식과 유희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고 그들에게 쉬를 나누는 우리의 휴가가 된다면 그 휴가는 나와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가를 떠난 이들은 반드시 휴가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쉬가 주어지는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게 될을 기억하며 휴가를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얻을 것이 풍성한 삶으로 나갈 것입니다. 풍족한 먹거리와 놀이가 있는 유희지에서 '나날이 이렇게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는 휴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쉬를 바라보며 그 쉬를 향해 더 가치 있는 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휴가가 된다면 지상에서의 쉬가 영원한 쉬의 맛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땅에 메고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쉬를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마11:29).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역설입니다. '땅에 메면 쉬를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느낌이나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메고 짚고 밟고 힘들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가벼운 쉬를 가졌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휴가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휴가와 쉬를 주는 인생의 역설을 가슴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thechhoi82@yahoo.com

필리핀, 마르코스 악몽 재현되나?

뉴스위크, 무소불위 권한으로 인권 유린 일삼는 두테르테 대통령 통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 보도

필리핀 북부 루손 섬 벵게트 주의 휴양도시 바기오에 있는 한 카페에서 메리 루 마리가자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치하에서 정치범으로 구속된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회고했다. 독재자로 악명 높았던 마르코스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필리핀을 계엄령으로 통치했다.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마리가자는 12개월 동안 고문에 시달렸다. 대부분 전기고문이었다.

그때의 계엄령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지난 5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하자 마리가자는 옥살이를 했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필리핀인처럼 그녀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무소

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인권 유린을 일삼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 비판을 엄단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법원 판결을 일축하겠다고 위협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필리핀 현지에서 계엄령 연장을 발미로 명백한 인권 유린을 일삼고 있는 두테르테 정권에서 '마르코스의 악몽'이 연상되고 있는 원인을 밀착 취재 보도했다(HOW PHILIPPINE PRESIDENT DUTERTE'S MARTIAL LAW GOT A BOOST FROM PROPAGANDA ABOUT A FORMER DICTATOR).

마리가자는 필리핀 인구의 약 4분의 1(2,500만 명)이 거주하며 필리핀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이 내려진 이래 주민의 순수한 모습이 더욱 낙담했다. 그녀는 "두테르테는 여전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후 주민의 반응이 너무 없다. 심지어 두려움이나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이제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모든 필리핀인이 계엄령이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다. 마르코스 사후, 거의 30년 동안 그 일가와 추종자들이 벌인 줄기찬 선전 캠페인으로 많은 필리핀인의 역사



마닐라에서 계엄령 연장 요구에 항의하는 시위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민다나오 섬의 계엄령을 일단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해 승인받았다(AP).

로 두테르테 대통령 아래서 당국의 권한 남용과 인권 유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는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그는 IS 추종 반군 소탕에 투입된 장병들을 위문하며 "여러분이 여성을 3명까지 강간한다면 내가 저지른 짓이라고 해줄 것"이라고 농담으로 말했다).

약 1년 전 대통령에 출마한 두테르테 후보는 마약 사용자와 판매상을 사살함으로써 불법 마약을 뿌리 뽑고 범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선출됐다. 필리핀 언론과 인권단체는 그 후 경찰과 자경단에 의해 7000명 이상이 목숨

마르코스 닮은 두테르테의 민다나오섬 계엄령 전국 확대 우려 마르코스 통치시절을 필리핀 '황금기'로 생각하는 추종자 많아

관이 왜곡됐다. 그에 따라 그들은 마르코스 통치 아래의 삶을 필리핀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마르코스 일가에게 좋은 일이다. 또 많은 사람이 두테르테 통치 아래서 그와 비슷한 독재 정부를 옹호하기도 더 쉬운 상황이다.

필리핀 여론조사기관 사회기상대(SWS)의 지난 6월 조사에서 필리핀인의 57%가 계엄령 선포를 지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보다 더 높다. 최근의 SWS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78%가 그의 업무수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결국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7월 4일 두테르테 대통령의 민다나오 섬 계엄령 선포를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계엄령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원을 기각했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 세력은 압도적으로 계엄령을 옹호한다. 야권이 대부분 마닐라에서 반 계엄령 시위를 벌이지만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지난 5월 23일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 마우테

가 민다나오 섬의 인구 2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도시 마라위를 점령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발동하고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 직전 필리핀 정부는 마우테의 동맹 세력인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의 지도자로 미국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수배자인 이스넨론 하필론이 마라위에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그런 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마우테는 마라위의 학교와 교도소를 불태우고 신부 한 명과 신자 열두어 명을 인질로 잡았다.

하필론 체포에 실패한 뒤 필리핀군은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마라위 지역을 공습하고 마우테 대원 수백 명을 사살했다. 두테르테 정부에 따르면 마우테는 민간인과 정부군 장병 수십 명을 사살했다. 이 전투로 주민 약 40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으며 7만 명 이상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대피소에서 지낸다.

계엄령에 따라 필리핀군은 민다나오 섬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민간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통행금지령을 발동하며(일부 지역에서 저녁 9시부터 통행이 금지된다), 민다나오 섬 내부에서 주민의 이동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다. 계엄령은 범인이나 의회, 또는 헌법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지만 비판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용해 마르코스 시절과 유사한 독재 체제를 확립하려 들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계엄령으

를 잃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서 두테르테 대통령 비판자들 사이에서 이번 계엄령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인이 계엄령을 지지하는 것은 마르코스 일가와 추종자들의 노련한 선전 캠페인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마르코스 대통령 아래서 1970-80년대 공산당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로 선포된 계엄령이 필리핀에 안정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8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p>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p>	<p>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p>

증오 편견 없애는 복음 진리 전할 때다

(1면에서 계속)

백인 민족주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대안우익'(alt-right)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대안우익은 기존의 극우주의나 정통 우파와는 달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기성세력도 적으로 규정한다.

백악관에 임성한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 겸 고문이 대안우익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중심인물 중 하나다. 배넌이 창립하고 운영했던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대안우익과 백인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대표적인 뉴스 사이트다. 이런 인터넷 매체들은 대선 때 트럼프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이런 매체들은 얼핏 기독교 세력을 비판하고 그 이익을 폭로하는 매체로 보인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난하고 클린턴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의 대부분은 이미 논란이 끝난 사안을 마치 새롭게 드러난 사실처럼 포장해서는 교묘하게 비틀고서 허위 사실을 첨가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로서는 기성 언론이 눈감는 거대한 비리가 새롭게 드러난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이런 류의 폭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중간 중간에 끼워 넣은 가짜 뉴스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트럼프의 당선은 백인 민족주의 세력에 크게 의지했다. 트럼프가 살러츠빌 시위를 비난하면서도 백인 민족주의 세력과 단체들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다. 시위를 조직한 큐클럭스클랜의 전 지도자 데이비드 듀크는 시위대가 "우리나라를 되돌리기 위한 트럼프의 약속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트럼프와 백인 민족주의 세력의 밀월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으로, 크리스천티투데이(CT)의 보도를 대신한다.

CT는 살러츠빌 테러 사태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증오와 편견에 침

묵하는 것은 복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크리스천으로서 미국 사회의 분열을 봉합시키기 위한 결단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Charlottesville, the Christian Response, and Your Church's Call: Silence on matters of hatred and bigotry is antithetical to the gospel).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기도하면서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개인적/공동체적으로 기도한다.

살러츠빌 테러의 슬픔을 접하면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복수나 원망이 담긴 행동이나 SNS를 통한 감정의 표명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말고 있는 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도

록 한다.

록 한다.

2. 강단에서 차별, 증오 그리고 인종 차별이라는 편견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교회 사역들을 통해 이러한 비성경적 사실들을 배척해나간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져야 한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올바른지 외쳐야 한다.

3. 이번 테러 사태를 유발한 세력들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의 사랑과 연대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강력한 실례다. 복음은 또한 증오와 편견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온전한 진리다. 크리스천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는 악과 선의 싸움 중에 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일어나서 외침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65세, 이제 노인 아니다!

(1면에서 계속)

을 가을이면 고향에 진입하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기업들은 65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늙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평균 수명이 비스마르크가 프리시아식

복지 국가를 건설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어졌다. 오늘날 평균적인 65세 독일인은 20년 정도를 더 살게 되며, 다른 선진국의 사정도 비슷하다.

둘째, "고령"의 정의는 건강, 또는 몸 상태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됐다.

셋째, 오늘날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공동체와 경제에 기여하기를 원하

고 있다. 65세에 직장 공동체에서 "은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인생의 단계란 사회적 산물이다. "노인", "은퇴자" 같은 개념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도 의미를 갖지만, 노인 당사자들에게도 일종의 시그널로 작용한다. 노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를 스스로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단계로 나누어진 인생 모델에서 어린이는 배우고, 성인은 일을 하며, 노인은 쉰다. 그 결과 65세는 사회, 경제적 쓸모를 다하는 나이로 굳어지게 됐다. 하지만 노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사람마다 달리 겪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65세에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시기와 "고령" 사이에 새로운 단계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모두가 길어진 수명을 더욱 알차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성공 목회란 무엇인가?(하)

필자는 그에게 "힘들겠지만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기억에서 지우십시오. 그것이 더디고 늦을수록 분노와 감정의 부메랑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 자신의 영적 세계를 황폐화하고 목회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강증 환자가 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물론 감정 정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우 35년 충신교회 목회 기간 동안 숱한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건을 접해야 했다. 그들을 대별하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협력자와 방해꾼, 말없이 일하는 사람과 떠벌리기만 하는 사람, 일이 되게 하는 사람과 망가뜨리려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솔직히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목목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좋다. 그러나 교회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얽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양의 존재가치와 염소의 존재가치가 상이하지만 공존하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 역시 양자는 공존한다.

나를 돕고 협력하던 좋은 사람이 떠나면 목회를 못할 줄 알지만 다른 좋은 사람이 대를 잇는다. 나를 괴롭히고 발목을 잡던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면 태평천하가 될 줄 알지만 이름만 다른 대타자가 등극한다. 그래서 목회란 좋은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친목계가 아니다. 모두들 안아야 하고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인적이고 통전적 사역이 곧 목회라야 한다. 싫다고 내치기 시작하면 결국 목회자만 홀로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끌어안다 보면 새어나가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평생 목회에서 발견한 보석이다.

성공 목회의 기준

성공 목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건물, 집회 수, 예산 구성원의 수준, 지역인가? 그렇다면 농어촌, 미자립 50여 명 교인은 목회 실패의 전형인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성패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전체는 아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웅장한 교회당, 부속시설, 수백억 예산, 화려한 학벌, 그런 교회가 왜 내용에 흔들리고 그런 목회자가 왜 내려앉아야 하는가? 그런 조건들이 목회 성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벽촌에서 나머지 떠나면 이 영혼들은 굶어 죽는

다며 50여 명 교회를 지키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느 목회자, 그는 실패자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위대한 목회자이며 순교자다.

상황 때문에 목사가 임지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임지 이동이 잦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큰 교회이기에 옮기고, 힘들어서 옮기고, 조건이 좋아서 옮기면 이동성 고기압처럼 안정과 정착이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동역자들에게 평생 목회를 권한다.

교인은 목사를 닮는다. 목사가 부정적이거나 전후적이면 교인도 그렇게 된다. 매사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교인도 닮는다. 반정부운동에 앞장선 목사가 있었다. 그는 교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시켰다. 정권이 바뀌고 거리 시위에 나설 일이 없던 어느 날, 목사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교인들이 훈련받고 훈련된 그 방법으로 담임목사 배척운동을 벌였다. 피켓 들고,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영원한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충신교회 부임 후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 수송을 위해 10여 대의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다. 교회 버스 기사 가운데 구파발-울지로 6가 노선 버스를 30여년간 운전한 기사가 있었다. 그는 "눈 감고도 구파발에서 울지로 6가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같은 길을 운전했기 때문에 눈 감아도 훤히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회', 그것은 자동차 운전처럼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도, 정신을 집중하고 위아래를 살피고 목회는 힘들고 어렵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조작이 가능한 사물이지만 사람은 제멋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동적 존재여서 언제 어디로 뛰쳐나갈지 예측이 어렵다. 감정이 변덕스럽고 언행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년이나 50년을 사역한다는 것이 자동차 다루듯 쉽겠는가? 그러나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고 성취감이 있기 마련이다. 산악인은 최고봉에 올랐을 때 삶의 희열을 만끽한다고 한다. 목회의 길,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남의 탓 하지 않고 최선의 걸음으로 걷는다면 최고봉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iamcspark@hanmail.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위대한 리더에게 섭리하신 고난-말틴 루터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하소연을 대하게 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 육체에 주셨다'는 고백이다. 그 가시가 때로는 너무나 아프게 하여 그것이 떠나가도록 세 번 씩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셨다고 했다(고후12:7-9).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중심에 부패한 속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연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을 지니게 되면 여지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본능을 좇아가려고 한다. 너는 본래 신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었을 뿐이라는 속살거림 때문이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로마의 영웅 시저 역시 그런 어별정한 자세를 취하다가 브루투스 일당에서 죽임을 당했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았고...

중세의 위대한 한 사람의 리더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는 수도사 출신의 개혁자 말틴 루터다. 그는 법률을 공부하여 위대한 변호사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길을 돌리게 한 결정적 사건을 만났다. 1505년 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 곁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어 버린 예가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처럼 생과 사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 광부의 수호성인 성 안나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살려주신다면 나는 수도사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갔다. 거기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더욱 진력하여 신학박사의 학위까지 받았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어간에 가톨릭의 비 성경적이라고 판단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하여 교황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유는 전통적으로 로마제국 국경 너머에 있는 도시 비텐베르크를 바티칸 당국은 학문적으로 중요하

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손을 잡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저 거대한 바티칸을 상대한 투쟁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말이다.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이 루터 편에 서서 도와주었기에 개혁운동은 수많은 동조자를 얻게 되었다. 또한 루터의 성경 번역을 통한 영적 지식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공도 컸다.

그런데 정작 그 거대한 일을 주도하는 루터는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수많은 병이 그를 괴롭혔다. 신장 결석, 장으로 인한 복통, 소화불량, 불면증 신경쇠약, 류머티즘, 난청, 신경성 두통, 어지러움, 치통, 만성 피로, 우울증, 통풍, 심장질환, 만성적 스트레스 등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질병들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신경이 곤두설 수 있었겠나 싶다. 그 뿐인가? 통풍이 너무 심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에 종기가 낫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설교를 감당해야 했고 많은 통지들을 만나야 했다. 그리고 설 사이 없이 논문들과 소책자들을 출판하고 많은 편지를 써야 했다. 그런데 그런 어간에 생후 8개월 된 사랑하는 딸 엘리자벳이 세상을 떠났고, 1542년에는 13살인 딸 막달레네가 죽는 슬픔을 당해야 했다. 막달레네의 죽음은 루터 부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딸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루터를 위로하는 귀여운 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와 그의 성찬에 대한 논쟁은 그를 힘들게 했다. 루터는 츠빙글리에 대하여 잘 몰랐다. 만나기 전에는 성찬의 해석이 다른 그를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화합의 필요성을 느낀 헤센의



루터 생가 앞에 있는 루터의 흉상

제후 필립은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1529년 마부르크에서 회담을 주선했다. 독일 황제가 비대해져 감으로 개혁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양쪽에서 50여 명이 모였다. 루터는 츠빙글리에게 이단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하나하나 심문하듯 질문했고 츠빙글리는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루터는 츠빙글리의 답변을 통해 자신이 상당 부분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고 당황했다. 교리적으로 츠빙글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15개

의 조항 중에 14개 조항에 합의했고 단 하나, 15번째 항목인 성찬론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니, 주께서 성찬에 현립하신다는 공제설을 주장했고, 츠빙글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스위스종교개혁자 츠빙글리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은 10박 11일 동안 논쟁했다.

(10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최창섭 목사
(뉴욕 에베레셀교회)



본문은 주님의 제자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의 "삶의 원리와 사명"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은둔자"로 살아가고 안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풍조에 물든 자"로 살아가고 안된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가치"를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높이며, 닦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셨다. "내가 비유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17:15, 17).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데려 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심,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특별한 뜻이 계심은 어두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마치 물고기가 염분이 많은 바다 속에 살지만 그 고기는 짜지 않은 것처럼,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결코 바닷물이 배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모두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들의 이성 문제, 물질 문제로, 교회나 사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란 뜻인데, 성경에는 "떡함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벧전2:9)이라 하였다. 이제는 직책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직분자다운 행위와 삶을 통해 직책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직분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곧 사탄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 또는 사람"을 뜻한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요(요12:31).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2:16)의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한다.

인간은 육신의 포로가 되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잔인하게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를 섬기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간의 제도과 교육, 환경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인간과 세상은 쉽게 변하

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다. 사람이 사는데 1일 소금의 최저량으로 12g정도가 필요하며 우리 몸에 최소한 0.9%의 염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염분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인체 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며, 몸의 유해한 물질을 없애고 세균을 없애는 데도 필요하다. 주님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저 사람이 없으면 안돼"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섬기는 단체에서도, 내가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가 "저 사람은 없으면 안돼. 저 사람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어" 라며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소금의 용도

1)부패를 방지해 준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식음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냉동시설이 발달되지 않던 시기에 소금의 역할은 대단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 그리

스도인들은 사단의 악랄한 역사를 막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도 안되며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예방하는 역할, 나아가 그 죄에서 떠나게 하며, 죄를 제거하는 도구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부패와 부패의 온상 진원지가 아닌 정직과 진실, 섬김의 온상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2)음식의 맛을 낸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요리가 거의 없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활기가 넘치고, 무엇인가 매력적인 모습이 보여야 한다. 나를 접촉하는 자들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세상에 지 못하도록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 준다.

또한 이 세상은 환란 시련 풍파가

손해를 보거나 회생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견해와 주장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 고집을 부린다.

정작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평화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나? 아직도 독기 어린 내 눈빛, 얼굴 모습이 아닌가? 내 말에 늘 가시가 돋혀있고, 남이 내 말을 들을 때 나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며 듣는지 아는가?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가 아닌 늘 잘난 체하고 비난만 일삼는 자는 아닌가?"

그러면 소금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싶게 하는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어 "내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말해 달

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은 10박 11일 동안 논쟁했다.

(10면으로 계속)

철적으로 정적하지 못한 모습, 인격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사기와 횡령, 마약과 도박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라져야 한다.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일날 교회와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해주세요, 사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끝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 그렇게 반복한 것이 벌써 수십년이 지났다.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반복할 것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상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교육계에서, 국방계에서, 연예계에서, 체육계 등 어디에서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각자가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사회가 살맛나고 국가가 잘 될 수 있고,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옛날 유대교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로 회당문 앞에 엎드리게 한 후 사람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게 한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소리쳐야 했다. "나는 맛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믿음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침으로 소금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으며 살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joosephchoi0408@yahoo.com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3.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가정, 직장, 불신자들의 모임에 당신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음란과 남을 비판하는 말, 속임수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 정직, 남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나? 그대 바로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서 불법과 부정, 부도덕이 사라져야 한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 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 겨냥하는 캘리포니아의 사악한 법안들 3가지!

새롭게 들어온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안에 무너진 자녀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진보주의 정치인들이 많은 주들이 계속 자녀들의 성 정체성과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SB 1146-캘리포니아 반기독교 법안 1

2016년 3월에 SB 1146이라는 발의안이 리카도 라라(Ricardo Lara 민주당 상원의원, Long Beach, CA)에 의해 제출되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캐톨릭, 심지어는 유대인 사립학교들까지 적극적으로 SB 1146을 반대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23개의 기독교 대학교들뿐 아니라 종교 사립대학들이 SB 1146을 반대한 이유는 이 법안은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고자 기독교 및 사립학교에서까지 "남녀 성별"의 명칭을 없앨뿐 아니라, 만일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남녀성별에 대해 학생들에게 성경적으로만 가르친다면 학생들에게 주는 칼그랜트(Cal Grants) 장학금제도를 기독교 학교로부터 빼앗아가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월에 자유진보주의 주지사로 알려진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사인하여 결국 SB 1146은 안타깝게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기독교 학교들에 대한 공격은 재정적 힘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B 569-캘리포니아 반기독교 법안 2

올해 2017년 8월에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치(Lorena Gonzalez Fletche, 민주당 하원의원, 샌디에고 CA)가 AB 569라는 발의안을 제출했는데, AB 569는 기독교/종교 사립대학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을 철저히 막을뿐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법대로 가르치지 않을 경우 벌금도 물고 어떤 때는 감옥까지 가게 만드는 발의안입니다.

AB 569(Discrimination Reproductive Health)가 주는 영향은?

AB 569에 작성된 문구를 읽어볼 때 가장 큰 위험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뿐 아니라 생명의 존중성을 가르치고 지키는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비즈니스까지도 공격받을 수 있도록 법적 문구를 미묘하게 사용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모든 기독교 단체들을 겨냥합니다.

5월 31일, AB 569에 대해 하원(State Assembly) 투표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80명 하원 의원들(55명 민주당 대 25명 공화당)중 54명이 찬성, 17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짐으로 AB 569 반기독교 법안이 거의 통과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번 더 미팅이 있었으며, 8월 21일에 상원들의 투표가 있을 예정이기에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and Transgender Long-Term Care Facility Resident's Bill of Rights 장기 노인 치료 시설 LGBT 주민의 권리)란?

이 법안은 노인 성전환자들을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성별로 부르는 것을 Politically Incorrect 즉,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하여 불법화시킬 뿐 아니라 만일 간호사나 장기 노인 치료 시설 직원 등 누구든 성전환자의 이름과 성별명칭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벌금과 감옥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SB219는 화장실과 침실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전환자가 원하는 성별에 따라 지정하게 만들며, 기독교 단체와 기관들의 시설도 예외가 없도록 법안이 작성되고 있기에 더더욱 사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장기노인시설에 들어가신다면 화장실, 샤워실, 침실 등을 사용할 때, 같은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을 가진 노인과 사용해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 SB 219도 주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 교회, 비즈니스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기에 만일 통과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파괴적일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California Family Council의 Greg Burt가 캘리포니아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정부가 시민들로 특정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믿을 수 있겠는가? 강요 언론은 자유 언론이 아니다. 주정부가 시민들에게 이런 강요를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전환자가 원하는 성별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미국전역의 0.1%도 안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일반 시민들 99.9%가 그야말로 차와 처벌을 당하는 법안들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이외에도 많은 반기독교 법안들이 캘리포니아와 자유진보정치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주정부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기에,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예를 들면 기독교가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고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무분별한 낙태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AB 569가 법이 되는 순간 이런 성경적 생명을 대한 가르침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결혼 전까지 지키라는 말씀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신에 무분별한 성관계가 마치 건강한 것처럼 낙태, 피임, 언제 어디서나 성관계를 장려하고 그런 행동을 강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AB 569가 우리 자녀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 끼칠 수 있는 법적 영향력과 그 파괴력은 어마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AB 569도 SB 1146의 경우처럼 AB 569 법령을 어길 경우, 주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병원, 기독교 단체, 회사 등등 주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 어떤 기독교 비영리 단체라도 징벌이 따르게 합니다.

현재 AB 569 상황

AB 569에 찬성투표한 의원들 (State Assembly 하원통과)

52명(민주당 전체의 97%)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독교 법안인 AB 569에 찬성을 한 것은 놀랍지 않아도, 2명의(공화당 전체의 10%)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참고로, 공화당에서 AB 569에 찬성한 사람들은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대표자인 Catherine Baker와 북 샌디에고 대표의원인 Brian Maienschein입니다.

SB 219-캘리포니아 반기독교 법안 3

7월 중순에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Scott Wiener(민주당,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에 의해 SB 219가 제출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위원회에서는 반대투표가 하나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SB 219(Lesbian, Gay, Bisexual,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청년 회장을 맡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저는 장차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전문분야에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렌지에서 강

A: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잠언 14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사람의 사상을 결정하는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가 읽은 책의 내용에 있습니다. 혁명주의 책을 탐독한 모택동은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고 무신론자 니체가 기록한 초인을 탐독한 히틀러는 자신이 초인이 되었다고 세계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의 목숨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자연과학과 전기 계통의 서적을 애독한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인권에 대한 기록을 다독한 링컨은 노예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평화의 자유의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 불리던 워너 메이커는 그 인생의 성공과 가치 있는 투자를 묻는 기자에게 성공적인 최대의 투자를 2달러 70센트짜리 빨간 가죽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성경책과 위인들의 사상 집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치

좋은 책, 좋은 친구, 좋은 스승, 풍부한 감성 갖도록

열하게 읽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위기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중국에서는 관중과 포숙의 우정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친구를 돕고 함께 해주며 희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이 돼주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실력과 인격이 좋은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십시오. 좋은 리더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교훈을 주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멘토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에서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는 좋은 스승,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구두수선공에 불과한 디엘 무디를 회심시켜 세계 최대의 전도자로 만든 김벌리 선생,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절망적인 생애를 살아야 했던 헬렌 켈러를 역경의 승리자로 만든 설리번 선생과 같은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 복중에 하나입니다.

넷째는 감성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비상한 두뇌는 있되 영혼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뒤에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불행에 처하곤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의 20년 동안의 조사에 그들의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가 성공의 핵심요소였다고 합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석양을 보고 커피를 마시며 사색할 줄 아는 여유, 슬픈 일을 보고 울 줄 알며 기쁜 일이 있을 때 소년처럼 웃을 수 있는 순수함, 남을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감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책과 스승과 친구를 만났을 지라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형제님은 아무쪼록 좋은 리더가 되도록 준비하며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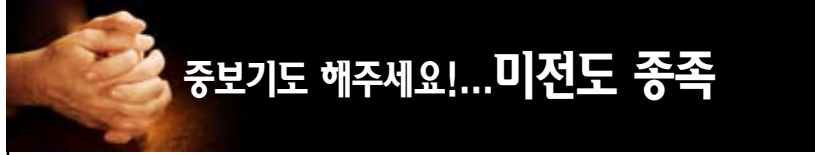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비하리(BIHARI)



4개 국가에 거주하는 7개 비하리 종족들의 통합 프로그램(방글라데시와 피지의 비하리, 인도

즈푸리어다. 이 방언은 문자는 매우 적지만 구전되는 민담이 많다. 나그푸리와 마가디어 같은 다른 비하리의 방언들은 보즈푸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다. 네팔에 있는 비하리족의 대다수는 마이틸리어 인구에 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비하리어와 마이틸리어를 함께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하리족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피난 온 것같이 생각한다. 1947년에 인도가 분열돼 인도 힌두국가와 파키스탄 이슬람국가로 뿔뿔히 갈렸을 때, 일부 비하리족은 무슬림들을 막아내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구 동파키스탄)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되면서,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이 비하리족들은 별개로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시에 그대로 머물렀다.

의 양가, 인도와 네팔의 보즈푸리 비하리, 인도의 마가디 비하리, 인도의 나그푸리 비하리).

몇몇 비하리 종족들은 인도와 네팔, 피지, 방글라데시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중심 지역은 인도의 비하르 주에 있으며 네팔 남부의 서부 테라이 주까지 이른다. 마가디와 나그푸리족 등의 일부 종족은 서부 벵갈 주에서도 볼 수 있다.

비하리족은 몇 개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보

삶의 모습

일부 비하리족은 대 히말라야 산맥의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가족은 고도 1,000피트(300미터)나 되는 조밀한 정착지에 짓는다. 그들 공동체 내에서 사회행정은 지역적인 수준으로 마을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보다 부유한 비하리족은 대개 가와지봉이 있는 진흙벽에서 살며,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으로 된 빈약한 진흙벽에서 산다. 어떤 비하리 공동체는 네팔 중남부의 치타완 주에 위치해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초가지붕이 있는 석조가옥에서 산다.

1971년 이후 방글라데시는 비하리족을 열등민족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이 파키스탄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대단히 분개해 한다. 방글라데시가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을 때, 절반 이하가 이를 받아들였다. 거부한 사람들은 국적을 바꾸느니 차라리 '약속된 땅',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며 죽겠다고 맹세했다. 불행한 것은 파키스탄 정부는 비하리족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구가 초만원인 이른 난

민촌에서 살며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과 다른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비하리 인구의 약 3/4가 경작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거의 전부가 농업에 종사한다. 네팔의 테라이 주와 인도 북부의 토양은 양질이며, 넓고 비옥한 땅을 제공하는데 비해 침식은 거의 없다. 비하리 농부들은 매년 있는 건기와 우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생산물은 "하트"(hat)라고 하는 매주 열리는 시장에 내다팔며, 이것은 그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힌두교 인구는 엘리트 상층계급, "카스트"와 소위 후진적인 카스트까지 형성한다. 비하리족 대다수는 하층 카스트에 속하며, "브라만"(Brahmans, 사제와 학자들)이 최상의 카스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들이 그 지역 힌두교의 종교적 주축을 이룬다.

비하리족의 부족문화는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와 산업화, 새로운 통신연락망, 부족 복지계획,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사람들은 두 나라를 거쳐 흘러내리는 히말라야 물줄기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앙

대부분의 비하리족은 힌두교도지만 또 상당한 수의 무슬림들도 있다. 무슬림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인도의 북부 비하르 주에 살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주요 신을 숭배하는데, 즉 "브라마"(Brahma, 창조자)와 "비슈누"(Vishnu, 보존자), "시바"(Shiva, 파괴자)이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숭배되는 힌두교 신의 수는 3,500만에 이른다고 하며, 그 신들 대부분은 선함과 악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환생의 과정을 겪는다고 가르친다. 업보(karma)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보다 높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지만 악한 삶을 살면 보다 못한 모습으로 환생한다

고 한다.

힌두교 부족들의 마을 대부분에는 "거룩한 숲"이라고 불리는 무도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마을 사제에 의해 예배가 행해진다.

비하리족 중 소수(약5%)는 "자이나교"다. 자이나교는 6세기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며, 처음의 몸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후에도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영혼은 계속 살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힌두교와는 반대로 최상의 존재를 부정하며 카스트 제도와 제사지내는 것도 거부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하르 주는 역사상 정치적 급진주의와 폭력으로 얼룩져있다. 이 주는 또한 인도에서 가장 후진적인 곳으로 평판이 나 있다. 따라서 비하리족의 물질적 필요는 상당히 많다.

방글라데시의 비하리족은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국가와 자신들이 원래 투쟁을 바치는 국가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만 참된 영성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로 '후끈'

호주 사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0년 이상 치열한 논쟁거리인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최근 일차적으로 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우편투표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면서 찬반 세력 간에도 벌써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1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 9일 여당이 내놓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안이 야당 반대로 부결됐다. 연방 정부의 국민투표 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 상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우편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묻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대안을 들고 나왔고, 10일 주요 야당인 노동당이 동의하면서 타협점에 도달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는 정부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LGBT)들을 혐오했고 비하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하면서도 "우편투표 불참은 동성결혼 반대자들만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그동안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동성애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혐오감을 부채질하는 등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세금도 낭비할 것이라며 의회에서 결정짓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 타협안이 나오자 동성결혼 합법화 옹호단체 일부는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동성애자로 연방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78)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번 합법화 절차는 자신이 "이등 시민"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투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여론조사로만 해도 충분한 일을 구속력 없는 우편투표에 1억2천200만 호주달러나 쓴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미 찬반 양 진영은 우편투표를 기정사실로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 앨런 조이스가 동성애자인 판타스항공의 경우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공영 ABC 방송은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천명에 신중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입담속에 나섰다.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우편투표는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고 최종 결과는 그달 25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쪽이 많은 경우 여당은 관련 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 경우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호주에서 국민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시민결합(Civil Unions)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들의 관계를 정식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결혼 합법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힐러리, 목사 되고 싶어 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항상 개신교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갖춘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베푼 애정을 고려하면 힐러리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의료보험 개혁에 관여했을 정도로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클린턴은 뉴욕 주 상원의원과 국무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다. 그런 그가 목사가 되고 싶어

했으며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평신도 설교자로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다닐 거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오랜 기간 동안 클린턴의 담임목사로서,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클린턴 캠프에서 일했던 빌 실라디 목사는 6일 미국 언론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의 품성과 삶을 감탄하면서 실제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린턴이 신학대학에 가거나 공식적으로 성직자가 되지 않더라도 평신도 설교자로서는 언젠가 강단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로부터 "종교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크리스틴 두 매즈 칼빈대 교수는 "교육, 여성인권, 공동체의 중요성 등에 관한 클린턴의 연설을 들으며 나는 깊이 감동을 받았다"며 "그런 내게는 클린턴이 감리교 신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미국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당시의 느낌을 털어놓았다.

클린턴이 성직자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는 말은 실라디로부터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미 뉴스위크의 편집자 출신인 케네스 우드워드도 지난해 가을 "힐러리는 영부인 시절인 1994년 '나는 항상 감리교 목사가 되는 것을 꿈꿨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대중의 눈에 과하게 견뎌 보일 테니 이것은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회상했다.

클린턴은 모태 신앙을 가진 감리교 신자로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가족과 함께 오랜 기간 감리교회에 출석해왔다. 실라디는 "힐러리는 선거 패배 이후 신앙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시민들, 제재에 분노·트럼프 위협엔 침착"

북한과 미국 사이 고강도 설전이 오가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서 '개전(開戰) 전야' 같은 긴장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은 13일 르포 기사를 통해 평양 시민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결의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지만 생활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소개했다.

평양 시내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밑에서 단결해 미국의 악질적인 제재와 압력을 단호하게 분쇄하자"는 플래카드가 걸린 가운데 미국과의 대결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의 대규모집회에는 10만명이 참가했다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해 내부 결속을 과시하는 것에서 지도부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북미간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선술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지난해 말 문을 연 '어린이 교통공원'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로 넘쳐났다고 전했다.

한 여성 시민은 통신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그것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한 제재결의에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통신은 거리에서는 '불패의 핵강국', '로켓(미사일) 맹주국'이라고 쓰인 선전물이 눈에 띄었다며 지난해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北京)발 평양행

정기편 항공기에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리호호 외무상 외에 지재용 주중국대사, 김형준 주러시아대사, 자성남 주유엔대사가 탑승해 있었다고 전하며 제재와 군사적 긴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본국에 모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버지니아 차항 테러범, 고교 때부터 나치즘 신봉

지난 주말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제임스 알렉스 필즈(20·사진)는 고교 시절부터 나치 사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1면].



필즈의 고교 시절 역사교사였던 데릭 바이머는 1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필즈는 고교 시절부터 나치 사상과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동경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바이머는 "미국의 근대 전쟁'이란 수업을 할 때 필즈가 나치 군대에 대해 논문을 제출했는데 아주 깊이가 있었다"며 "그는 나치즘과 히틀러를 숭배했고,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견해도 깊이 믿고 있었다"고 전했다. 바이머는 필즈가 나치에 대한 동경에서 벗어나도록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자책했다.

필즈는 지난 12일 샬러츠빌에서 열린 백인우월주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로 인해 헤더 헤이어(32·여)가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필즈의 어머니 서맨사 블룸은 "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가하는 줄 알았지만 백인우월주의 집회까지는 몰랐다"며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선 필즈가 지난해 공화당원으로 등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편견을 규탄한다"며 백인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는 백인우월주의자와 쿨럭스클랜(KKK), 신나치주의자 등 모든 극단주의 단체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 "언론, 왜 폭력 비난 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 세력의 유혈·폭력사태에 대한 정면 비판을 회피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서 논란에 휘말렸다.



펜스 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와 맞불 시위 등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3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친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폭풍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 등이 강력히 비난한 점을 거론하면서 "많은 미국의 언론이 폭력을 영속시키는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말을 비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문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공론장에서 완전히 추방돼야 할 극단주의 단체나 증오단체, 위험한 비주류 단체 등에 주목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이든, 네오나치든, KKK(쿠 클럭스 클랜·백인우월주의 단체)

등 증오와 폭력은 용인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일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를 촉발한 백인우월주의를 지목해 비난하지 않고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편견, 폭력의 지독한 장면을 최대한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모호하게 비켜갔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앞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은 12일 샬러츠빌에서 남북전쟁 당시 '노예주' 쪽의 남부연합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E.리 장군의 동상을 샬러츠빌 시 당국이 철거하기로 한 데 항의, 인종차별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지중해 난민 줄어...밀입국업자 단속효과?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 수가 지난달부터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 강화된 밀입국 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오는 난민들의 최대 관문으로, 유럽 난민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은 8만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유입 난민수는 작년의 1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은 1만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8월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1천587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2만1천300명에 달했다.

보통은 날씨가 좋은 이 시기에 난민 수가 최고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소세는 불법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 등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낙관적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들의 자발적인 본국 귀환과 밀입국업자 단속, 난민 구조작업 등을 위해 리비아 영해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훈련과 순찰함정 등을 지원했다.

동시에 리비아 각 부족에 대규모 원조를 약속, 난민 밀입국 사업에 관여하는 부족원들을 막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르코 민티리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우리는 마침내 (난민 증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난민 유입이 통제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터널 끝의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 반(反)이민 정당들의 힘을 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유럽에서는 2년 전부터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반(反) 난민 정서가 고조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각국에서는 난민, 이민이치를 내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득세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밀려드는 난민 가운데 숨어들어오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서는 난민 위기 대응 방법을 놓고 분열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단 난민 문제를 두고 낙관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리비아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세는 곧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탈리아 내 무부의 마리오 모르코네 이민국장은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러 정책에 따른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들어가는 말

1)마르틴 루터와 500년 역사의 개신교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그 중심에 독일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주도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있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하였다. 초기에 그의 마음에 지녔던 개혁 사상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았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에 큰 힘을 발휘하며 거침없는 불길이 되어 번져나갔다.

그는 중세교회와 새롭게 출발한 개신교의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았다. 현재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있다. 신학과 사상을 달리하여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길에 남긴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2)마르틴 루터와 21세기 이민교회

마르틴 루터와 21세기 이민교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루터는 중세 말기의 인물이다. 그가 교회를 바라보며 개혁을 의도하고 실행한 실제적인 고민들은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민교회의 배경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이 5세기라는 긴 세월의 간격을 넘게 하는 연결고리일까?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와 나아가서 이민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되어왔다. 매우 시급해진 상태 속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되었고,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개혁의 선구자인 루터에게 관심이 쏠리게 된다. 우리의 관심사인 개혁 정신과 원리를 그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3)내용 전개의 한계와 방법론

루터는 자신의 사역 전반부에 로마가톨릭교회를 주된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로는 개신교의 신앙적 기초를 놓으며 새로운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의 사상은 점점 발전되어 갔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교회 개혁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시종일관으로 성경을 중심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성경 말씀에 불합리한 개혁자였다.

이민교회의 개혁에 언급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루터를 영웅으로 추앙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배인 그가 후대 교회에 남겨준 귀한 영적 유산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

이다.

물론 루터가 이민교회가 당면한 모든 과제에 대해 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루터가 지녔던 개혁의 출발점, 원동력, 그리고 영향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민교회의 현실을 간단히 살핀 후에 루터에게 귀

감당했다. 정착하는 과정가운데 생기는 각종 문제에 대한 도움을 얻는 곳으로 각인되어갔다. 언어의 장벽과 이질 문화 속에서 직장과 자녀교육은 물론 간단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구가 된 것이다. 심지어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무작정 교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초기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은 매우 고달팠다. 이민자들의 거

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교회 출석 성도들에게 교회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곳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채 형식적이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가 이 학교에 1년간 머무는 성경에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듯하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전통적으로 성경읽기를 영적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왔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12세기의 중세 교회 신학의 흐름 속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12세기에 대학이 설립되면서

의 일, 즉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본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떴음에 분명하다.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 진학하였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닌 교수들이 가르쳤던 학교였다. 어느 날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태어난 후로 처음 직접 성경을 읽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사무엘상 앞부분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의 찢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의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그가 성경을 처음 대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였다는 점이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1505년, 갑자기 부친과 상의도 없이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었다.

천동번개를 만난 뒤 공포에 질려 수도사가 될 것을 서원한 것이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지체하지 않고 같은 도시에 자리한 어거스틴 은둔자 수도원을 찾았다. 수도 생활이 구원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이 수도사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1507년 4월,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다. 분명 중세 교회가 낳은 아이였다.

(2)피할 수 없는 신앙의 갈등: Anfechtung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수도원을 찾아간 루터에게 신학과 신앙의 지도자로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요한 스타우피츠(Johannes Staupitz)를 만났다. 스타우피츠는 튜빙겐 대학에서 '공동생활 형제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10-1495)에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닌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다른 수도사들보다 루터를 매우 특별히 대우하였다. 루터의 뛰어난 학문성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 성경학사를 나중에는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도록 권장하고 추천하였다.

수도원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다. 루터의 신앙의 갈등은 매우 독특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 떠난 상태에서 방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등의 일반적인 갈등이 아니었다.

그의 고민의 핵심은 하나님께 비취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고 느낀 것이었다.

(14면으로 계속)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5)

- 루터의 성경적 종교개혁과 이민교회(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가 지녔던 개혁의 출발점, 원동력, 영향력을 주의 깊게 관찰 교회는 필요 채우는 곳 아닌 '신앙공동체' 라는 정체성 확립 시급

를 기울일 것이다.

1. 개혁의 출발점에 대한 질문: 말씀 앞에 비쳐진 나의 모습은?

1)이민교회의 현실: 정체성의 혼동

(1)이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을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의 일

주지를 정하는 일, 면허증을 딴 후 차를 구입하는 일, 그리고 직장을 알선해주는 일 등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3)교회의 정체성과 개인 신앙 지금과 같이 SNS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민교회는 타국 생활에 지친 이민자들에게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으로 남아 있게 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시급하다.

2)루터의 고민과 해결책: 이신칭의

(1)중세 교회가 낳은 아들 루터는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중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심을 키워왔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이성을 강조하여 사번적 이론을 중시하는 스킴라주의 신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수도원 신학, 즉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묵상과 신비스러운 내적 관계를 강조하는 신학과 결별을 가져왔다. '공동생활 형제단'을 시작한 제럴드 흐루터(Gerard Groot, 1340-1384)는 독일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도리어 신비주의

루터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점에 집중 루터의 '영적 고통' Anfechtung이 실제적이었다는데 관심 가져야

이다. 아시아인의 이민을 배척하는 내용을 골자로 1924년에 제정된 이민법이 대폭 수정되면서 문호가 열린 것이다. 한인 이민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도시에 한인 단체로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한인교회의 수도 텅달아 늘어났다. 1970년까지 70개 미만이던 교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7년 현재 4000개를 넘는 상태이다.

(2)이민 교회에 대한 기대감 초기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교회는 한인회의 역할을

같은 동포를 만남으로서 고독을 이겨내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었다.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유산을 가르침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생활의 길잡이로 알려진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공동체'라는 교회의 고유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신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과거의 삶

경험을 가지고, 영리한 아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전혀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1497년, 루터는 학업을 위해 가족을 떠나 마그데부르크(Magdeburg)로 가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경건 운동의 회원인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이 운영하는 중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사제들이 미사 시간에 성경 낭송을 할 때에 듣는 것 외에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제와 청중 모두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가 지닌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성품을 본받는 경건한 신앙을 중시하였다.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 비록 그들은 중세 교회 신학의 틀에 갇혀있었지만,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à Kempis, 1380-1471)도 이 운동에 속한 인물이다.

루터가 교사들을 통하여 성경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신앙을 갖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상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advertisement for the 3rd New Testament Postcard Contest. Includes details on prizes, submission rules, and contact information.

리더십 코멘터리 (4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의 습관이 세상을 살린다

습관은 밭줄이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은 습관의 노예로 살아간다. 습관은 밭줄과 같다. 우리는 그 밭줄의 가닥을 매일 짜고 엮어가서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굵은 습관의 밭줄을 만들고 마는 것이다.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변화는 내 주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하기 때문이다. 즉, 한번 일어난 변화를 변화의 전부로 착각하는 것이다. 변화를 새로운 행동양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체득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물론 변화가 습관으로 체화되기까지의 기간을 반드시 6개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만큼 변화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체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변화를 체질화하기 위해 나쁜 습관 연결고리 끊어내는 계획 필요 헌신 자가 성공 확률 가장 높아 · 공감 습관 가져 소통하는 리더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행동의 연속성이란 바로 좋은 습관을 말한다. 리더는 좋은 습관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리더의 습관이 세상을 살린다.

지금은 새로운 기준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지금 나쁜 습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MIT 연구진에 의하면 모든 행동에는 연속된 신경학적 고리가 있다고 한다. 인간이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신호를 받아 보상을 기대하며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그동안 잘못 살아온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기준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만의 습관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서 습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유발하는 신호와 보상 그리고 습관에 따른 반복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나쁜 습관을 변화시킬 모든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습관으로 몸에 배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

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리더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 리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헌신하는 사람(다른 이를 돕는 것이 우선인 사람), 받는 사람(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연결해주는 사람(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One's habit controls his fate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라.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습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습관은 '행동, 삶의 길, 삶의 방향'으로 해석되곤 한다. 또한 습관이라는 말속에는 '판단, 심판, 권리' 등의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습관이 인간 자신의 판단이나 권리에 따른 행위임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습관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신의 주체적 행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습관이야말로 남에 의해 행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신과 주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습관이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주도 아래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된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결정 그리고 되풀이 되는 반복된 행동이다. 오늘도 무심코 행하는 나의 습관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습관이 삶을 좌우한다.(One's habit controls his fate.)'는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실패를 두려워말고 헌신하는 습관을 갖자

세상이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일의 승패에 따른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회복력이란 패배와 실패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좌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회복력이 강해야 위험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인생에서 실패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교훈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절대 모험을 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다음 단계를 향한 징검다리'로 이용한다. 목표가 분명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경청했다. 클린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의 카리스마가 바로 사람을 중시여기는 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린턴은 정치 인생 초기부터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눈을 주시하며 경청하는 것으로 소문났었다. 대화 중에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당연시되어 가고 있는 요즘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대너는 남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아무리 바빠도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습관이 아닐까?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사업이나 조직을 한발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이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허심탄회하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지식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체함에 대한 욕망을 뜻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감동시켜 자기편으로 이끄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공감대를 잘 이루는 사람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게 마련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할 수 있다. 경청하고 공감

하는 습관을 통해 리더십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서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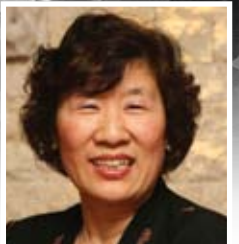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행동을 반복하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며, 경건함이 몸에 익숙해지면 인격이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여 그 행동이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 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그때까지 쌓아온 습관에 의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좋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인격적인 믿음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서양 격언이 생각난다. 우리의 하루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날 중의 하루이다. 오늘의 소중함, 오늘의 신중함, 오늘의 감사가 내일로 연결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마음속에 자신이 바라고 목표하는 모습을 그리며,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서 내일의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경청하며 공감하는 습관을 갖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만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성공이 가장 위험한 때이다-다윗 묵상(5)

“하나님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시69:5).

완전한 자는 과연 없는가 보다. 다윗이 바야흐로 성공의 최고봉에 왔다. 암문을 진멸하는 막바지에 구태여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요압이 끝을 내주리라는 안이함에 뒤에 남아 있다가 일생일대의 사고를 친다.

순간 아차하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인가보다. 그 무수한 죄의 유혹을 물리친 그가 여자에게 불가항력으로 넘어진다. 저는 안일해져 잠시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마음의 경계를 풀고 이쁨이야 마귀에게 대문 내어줬다.

분명히 헛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남의 여자임을 알렸건만... 데려와 동침하여 애가 생겼다. 죄도 손발이 맞아야한다. 우리아가 너무도 충성됨으로 인해 다윗의 죄 은닉계획이 불발한다. 작은 죄가 담대해져 우리아를 도로 전쟁터로 보내어 이번에는 아예 그의 충성심을 이용해 최전방에 내세워 죽이니... 사람 눈은 가려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산 그가 그와 같은 악을 눈 깜짝 않고 악한 죄를 따르니, 그간의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온 그가 무슨 망발이던가? 그에게도 그와 같은 고범죄를 피할 능력이 있었나? 어느 누구도 실족하거든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든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경고를 정말로 끼고 살아야한다. 죄에게 코가 끼임은 순간이다. 탐욕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남의 것을 약자라고 내 것으로 취하니...

하나님이 저보다 의로운 우리아의 피 값을 그에게서 평생 두고두고 받아내시니... 겁난다. 개구리 울렁이적 생각 못하듯이 쫓기던 다윗이 어느새 나라가 커지니 승리감에 취해 죄를 짓고 죄 값으로 인해 집안에 피가 끊이지를 앓아 심지어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 받고 겨우 회복해 돌아와 안정세로 들어가니 또 넘어져 그만 왕의 위엄을 과시하려 충신 요압의 간언도 못들은 척 10여 개월에 걸쳐 칼 빼는 자가 무려 130만 명에 이른다는 인구조사 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라기보다는 세상식의 금력, 권력의 자랑 정도를 알고픈 것이었음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가 자신들의 국력에 있음은 은연중에 의지케 오도하는 망령된 행위였음에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고 마음에 깊은 찰질을 받고 하나님께 자복한다.

이에 선견자 갖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선택을 주니 3일간의 은역을 택하니 7만이란 숫자가 죽는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 통치하에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 자신이 왕의 자리를 고수하신다.

실패할 때나 어려울 때보다는 성공관리가 더욱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하여 자기 과시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에 웃기가 여려진다. 아니, 자기 과시보다는 자신의 안전도를 하나님 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권력, 금력까지에 두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결코 못되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가 교만으로 자만으로 때내려감을 허락지 않으시고 팔 다리가 잘려 나가더라도 뼈아픔을 통해 중심을 은혜 안에 잡히도록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씌으면 잘라 내시며 주관해 운영해 나가신다.

죄가 부추길 때 한 눈 팔고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잠시 잠깐이나 한 번 지은 죄로 인해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려면 참으로 치러야할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찌 이리도 어리석어 고통을 한번이 당하면서도 죄에 딱 붙어 죄지를 만반의 태세를 갖춘 자신을 보며 티끌에 코를 대고 회개해 본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의 은밀함을 회복할 수 없으니... 값을 치르더라도 돌아서 회개하면 받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 없다.

heenlee55@hanmail.net

(2면에서 계속)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이 지속되는 동안 필리핀군은 최소 3,240명을 사살했고, 3만4000명을 고문했었다. 7만 명을 구한했다. 대규모 시위를 중심으로 한 '피플파워' 혁명으로 군부마저 등을 돌리자, 마르코스는 1986년 하와이로 망명했다. 그 후 민주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설립한 바른정부위원회(PCGG)는 마르코스가 일가이 국외에서 횡령했다고 알려진 100억 달러 중 40만 달러 정도를 회수했다.

일로코스 노르테 주에 있는 마르코스의 고향 바타엔 그와 부인 이멜다를 추모하는 공공 사진전시관 체계화센터가 있다. 하지만 인권 침해나 국외 회령에 관한 언급은 거기에 없다. 현관 위에 새겨진 글은 이런 내용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이 실시된 기간에 법치를 존중했고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했다...그는 계엄령이 발동된 동안이나 그 후 단 한 명의 필리핀인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인권의 다른 박물관 3곳(메르디난드 E. 마르코스 대통령 센터, 말라카양 대통령궁, 마르코스 박물관)

도 그 문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박물관들은 한결같이 마르코스의 업적을 추켜세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마르코스가 일본군과 싸운 것을 보여주는 전시관은 그가 8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한다. 마르코스가 어린 시절 친구에게 게임을 죽이지 말라며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게임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다.

일로코스 노르테 주에는 마르코스 일가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 주도 라오아그의 청사에선 부인 이멜다, 장녀 이미(현재 일로코스 노르테 주지사), 외아들 봉봉의 실물 크기로 만든 사진이 방문객을 맞는다. 매년 9월이면 노래자랑, 토론회, 박물관 무료 개방 등의 행사와 함께 성대한 마르코스 생일 파티가 열린다. 일로코스 노르테 주정부의 홍보관 훈 구도이는 "마르코스가 우리 주에 많은 것을 가져다줬고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선전과 마르코스 시절 마닐라에 세워진 여러 문보이는 인프라(필리핀 문화센터, 필리핀 심장센터

등으로 비판자들은 그가 축재에 사용했다고 지적한다)로 인해 일로코스 노르테 주민 다수는 마르코스를 숭배한다. 은퇴한 교사로 그곳에 물려 거주한 호세리토 톨린코는 "필리핀이 마르코스 치하에서 규율을 좀 더 잘 지켰고 사회가 안정했기 때문에 다시 계엄령이 선포돼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필리핀 전역에 마르코스 지지자가 많은 것은 선전 효과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선 역대 정부가 약속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필리핀인 다수가 정부를 불신하게 됐다는 얘기도. 마닐라 소재 마르코스 반대단체인 '블록 마르코스'의 대변인인 알바레스는 "마르코스 시절 이후에도 필리핀은 정부의 의미 있는 변화를 못 봤다"고 지적했다. "부패와 극단적인 빈곤, 불평등이 여전하다. 삶의 모든 기본적인 품위가 마르코스 시절 뒷받침됐던 대로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지만 고질적인 부패와 빈곤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21.6%는 국가의 빈곤선 아래서 생활한다. 국제투명성

기구(TI)는 지난해 부패지수 순위에서 필리핀을 176개국 중 101위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이 필리핀인 사이에서 마르코스 독재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에 따라 계엄령이 필리핀의 국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마르코스 지지자로 일로코스 노르테 주의 국가청년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벤틀러는 "마르코스의 긍정적인 기여보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필리핀 사회는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때문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필리핀인이 그의 말에 동의한다. 지난 3월 필리핀의 여론조사 기관 '필스아시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많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리핀인의 비율이 20%였다. 루손, 민다나오와 함께 필리핀의 주된 3개 섬 중 하나인 비사야 지역에서 계엄령 지지도가 36%로 가장 높다.

마르코스 선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의 열정은 일로코스 노르테 주에서 가장 강하지만 필리핀의 나머

지 지역에선 마르코스를 중립적이거나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에서 그렇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의 호세 티롤 역사학 교수(지신해 이 대학에서 계엄령 과정을 개설했다)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마르코스 문제를 대부분 회계처럼 처리한다"고 말했다. "회계 장부에 차변과 대변이 있듯이 그가 잘한 일은 이것이고 잘못된 일은 그것이라는 식이다. 두 가지를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빼는 것은 빼보면 그래도 그가 잘한 점이 많다는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마르코스의 외아들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필리핀 부통령에 출마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르코스 선전을 정치 여론의 주변부에서 주류로 끌어올렸다. 실례로,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서 음모론을 제기한 마르코스 지지자도 있다. 마르코스의 정적이던 니노이 아키노가 필리핀에 정치 불안을 조장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엄령 따라잡기'라는 제목의 글은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역사를 수정하고 마르코스의 명예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수천 가지 게시물 중 하나에 불

과하다.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자인 봉봉 마르코스 후보는 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에게 26만300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했지만 대법원에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한편 마르코스 일가는 인권 유린과 횡령, 부패에 관한 비난에 대해 결백을 주장한다. 그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결론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르코스를 추켜세우며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그는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한 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매우 좋았다"며 계엄령이 확대되면 '마르코스를 모방하는 셈'이라고 표현했다.

마리그자는 그 때문에 우려가 크다. 그녀는 "이전에 배웠어야 마땅한 정치적 교훈을 두고 또다시 불안과 내분을 겪어야 하는 미래가 그려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앞날을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필리핀인은 궁극적으로 계엄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목회서신

가짜 영성과 진짜 영성



여승훈 목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의 증세 중의 하나는 있는 척 한다는 것이다. 흠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존귀함을 부여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고 존귀함을 부여 받았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흠의 상태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흠 자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의 인류의 존재 가치는 제로(0)이다. 그런데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 된 존재들이 자기들의 노력을 수고로 있는 자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흉내를 내는 것 이것이 인류의 죄 된 상태를 반영해주는 것이다. 없는 자가 있는 흉내를 내는 현상이 교회 안에도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상이 현대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고 있는 유행어 중의 하나가 소위 "개인 영성"이다.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개인의 내면을 발전 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다양한 영적 수행들(명상, 관상기도, 환상, 내면세계 체험)을 실시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적 수행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초점이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더욱 깊은 명상, 더욱 깊은 관상 기도, 더욱 신비한 환상체험, 더욱 깊은 내면세계 체험을 향하여 치달게 된다. 이러한 것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들의 초점을 다양한곳에 두게 하여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집중력을 분산(distract)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미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2:8). 철학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출발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

서 나온 것은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깊은 영성을 위하여 시도하는 영적 수행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취향에 기인하여 출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명상이 깊어졌다고 말하고, 스스로 기도가 깊어졌다는 말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무엇으로 인한 깊은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신뢰의 깊이이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어떤 영적 수행들을 통하여 영성이 깊어졌다고 말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있는 흉내를 내는 필사나운 장미꽃의 모습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골2: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관한 모든 진리를 의미한다. 당신의 영성이 참으

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보화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더욱 깊어져 가야만 한다. 만약 이 깊이가 아닌 당신 자신의 어둠함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적 수행들을 통하여 영성의 깊이가 비뚤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도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이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된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어떤 깊이가 나타나다는 그런 어쭙잖은 인간 뱀새 풍기는 영성을 단호히 거부하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슴과 심장으로 느끼는 깊이가 더욱 깊어가므로 점점 그분이 더욱 드러나고 점점 그분이 더욱 노래되어지고 점점 그분이 더욱 증거 되어지는 이런 영성을 추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욱 깊이 알아 가면 갈수록 당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죄 된 상태를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였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죄인중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죄 된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위대함을 더욱 온전히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영성의 지표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런 영성의 지표가 아닌 어떤 다른 영성을 지향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외에는 결눈질도 두지 말라. 영성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다. 영성의 초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유사한 기독교 진리의 소리에 머물러 자리에서 발뺌 일어나서 흠과 결점이 전혀 없는 완전 무모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 자리는 곧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newsong6364@gmail.com

북에 31개월 억류 임현수 목사 석방
큰빛교회 주일예배 참석 억류생활 소개

북한 중앙재판소는 적대 행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31개월만인 지난 9일 병보석으로 석방돼 캐나다 집으로 귀환했다. 임 목사는 13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미시소가에 있는 큰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 석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예배에서 임 목사는 "평은 쫓겨 얼어 있었고, 진흙탕이 너무 단단해 구멍이 하나를 파는 데 이틀이 걸렸다"면서 "상체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에 걸렸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봄과 썩는 더위의 여름에도 야외에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서 첫 1년간의 혹사에 몸이 상해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건강이 악화해 3번을 더 병원에 갔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감찰에 의해 처음에는 사형이 구형됐지만, 재판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나에게 큰 평화를 주었다"고 회고했다. 임 목사는 이어 "그 순간부터 건

정인 이 얼떨결에 풀어주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앞으로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을 깨우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임 목사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특사로 북한에 파견됐던 대니얼 장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비롯한 캐나다 정부와 북한에서 영상면접을 통해 지원해준 스웨덴 정부, 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자신의 석방을 지원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로 표시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17년 8월 9일부 판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공민 임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 되었다"고 전한 바 있다. 임 목사는 2015년 1월 북한 나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역 중이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물을 지켜가며 내부적으로 셀프컨트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덕희 코디네이터는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LA지역 라이브 강의를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며 "나이를 불문하고 정규신학교인 GMU로 오시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GMU 주요학위과정은 신학 학사과정 (BA, 4년) 기독교교육학 석사과정 (MAICS, 2년) 목회학 석사과정 (M.Div, 3년) 신학교 박사과정 (D.Miss, 3년)이 있으며 각종 장학금제도도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등이 준비돼 학생들을 돕고 있다. 현재 미주내 한인신학교들이 학생 수 절감과 I-20비자 발급관련 등으로 목사를 잃고 있는 이때에 많은 투자를 감내하며 LA지역에 확장 클래스를 결정하고 라이브 강의를 위한 시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GMU의 새로운 출발은 교계와 신학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것은 www.gmu.edu에서 볼수 있으며 admissions@gmu.edu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스태프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엘에이강의실 확장고 라이브강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LA확장클래스 및 라이브강의 시작
그레이스미션대 본교와 동일한 시간에 수업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LA 한인타운에 강의실을 준비하고 라이브강의를 시작한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관계자들은 9일 오후 5시 LA 강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장클래스와 라이브강의에 대해 소개했다. 본교 행정처장 구자혁 교수는 "GMU는 예장국제총회(PCIGA) 교단신학교로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ABHE, TRACS 및 ATS의 학위인가 기관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된 학교"라고 소개하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구 교수는 "확장클래스는 본교 개념이 아니고 라이브 강의를 위해 강의실을 연 것"이라고 전제하며 라이브 강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구 교수는 "Live(실시간 강의)란 본교에서 강의하는 동일한 시간에 LA 확장클래스에서 동일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라이브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LA 지역 학생들이 본교와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첨단 기술이며 LA에 확장클래스를 운영해 풀러톤에 오기 어려운 벨리 지역과 LA지역의 학생들은 LA에서도 직접 강의를

듣고 I-20를 유지하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라이브 강의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며 LA 확장클래스에서 최규남 총장의 모세오경과 김현완 학장의 조직신학1의 두 과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함께 자리한 이병구 교수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해외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의 연장교육과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한 비전을 갖고 하다 보니 현재 청강을 포함한 학생수가 280여명에 달하게 됐고 I-20 유학생이 100여명이 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교수는 "I-20를 유지할

CTC 연합합창단, 도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첼리스트 유스 콰이어, 감사한인교회 연합성가대, 그리고 바리톤 권혁준 소프라노 고은희 부부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으며 가수 박정현 씨가 특별 찬조 출연해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목사, 영어, 평신도
배달 주소, 전화/Fax, 받는분 이름, 전화번호/Fax,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울타리선교회 창립18주년 기금모금 음악회
울타리 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창립 18주년 기념의 기금모금 음악회를 8월 10일 오후 7시30분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사진 11면]
윤우경 아내운서의 사회와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 시작 기도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서울사대부와 총동창회 한미연합합창단, CTS 연합합창단, 도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첼리스트 유스 콰이어, 감사한인교회 연합성가대, 그리고 바리톤 권혁준 소프라노 고은희 부부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으며 가수 박정현 씨가 특별 찬조 출연해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광복72주년 기념 8.15경축음악회가 마가교회에서 열렸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광복 72주년 8.15 경축음악회
광복 72주년 8.15 경축음악회가 12일 오후 4시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은혜롭게 열렸다.
경축 음악회는 솔리스트 황해경, 오위영, 채홍석씨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와 한국에서 방탄한 조미자 목

사의 찬양, LA Sinfonietta Youth Orchestra의 아름다운 선율, 코랄레움 선교합창단, LA여성선교 합창단,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Joyful Chorus, 예루살렘 성가단이 참가해 합창의 진수를 보여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교계 원로 목사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음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축하행사는 푸짐한 행운권 추첨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경축음악회가 열리기 전에 드린 1부 예배는 김종용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국민 의례로 시작했다. 이날 강부용 목사(남가주교협 상임이사)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으며 안덕원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회관 건립 기금모금 골프대회

뉴저지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국 목사)가 회관 건립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갖는다. 일시는 9월 12일(월) 오후 1시 Preakness Valley 골프코스. 신청서를 이메일, 혹은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 www.njkchurches.org, 이메일 njkoreanchurches@gmail.com ▲문의: (551)257-5001

'부부 사랑 업그레이드'

패밀리터치(대표 정성숙 박사)가 주최하는 '부부 사랑 업그레이드'가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동 오피스에서 열린다.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기술, 갈등 해결, 부부 및 가족 원칙, 사랑의 언어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패밀리터치는 9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스케치 교실을 개강한다. ▲문의: (201)242-442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 4회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한국음식 나눔축제)을 9월 24일(주) 오후 3시 10분부터 7시까지 개최한다. 코리안 BBQ, 부침개, 김밥, 잡채 등 외국인에게 친숙한 6가지 메뉴와 떡볶이를 선보이게 된다. 또 태권도, 사물놀이, 부채춤 등의 공연과 지역 주민들과의 흥겨운 시간을 위한 재기차기 대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무료 포토부스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718)229-0858

담임목사 청빙

퀸즈한인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민 목회에 대한 비전과 소명이 뚜렷하고 정규 신학과 졸업후 목회경력 5년 이상, 한국어-영어 능통하며 설교가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가족 포함), 목회비전서, 목사 안수증명서, 학위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가족사진 1매, 최근 한국어 설교 2개(YouTube links), 최근 영어 설교 2개(YouTube links), 추천인 2인의 추천서. 서류 마감일은 9월 15일이며 PDF로 이메일(KCQPNC@googlegroups.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672-1150

뉴저지 필그림교회, ECO 교단 가입키로

13일 공동회의 투표결과 98.1%와 96.7% 찬성 얻어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지난 8월 13일 임시 공동회의를 열고 미국장로교(PCUSA)를 탈퇴하고 ECO 교단에 가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2번의 예배 후 개최한 공동회의 투표결과 각각 98.1%와 96.7%의 찬성을 얻었다. ECO(복음 언약 장로교,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는 미국장로교 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2012년 1월 만든 교단으로, 2017년 7월 1일 현재 16개 노회, 347개 교회, 517명 목사가 속해 있다.

한인교회로는 미국장로교 등에서 나온 11개 교회가 속해 있으며, 미동부에는 뉴저지디립교회(담임 권기현 목사) 1개 교회가 속해 있다. ECO는 보수적인 신학과 재산권이 교회에 속한 것이 특징적이다. 필그림교회는 ECO 교단에 가입 신청서를 냈으며 8월말 교단에서 나와 목사와 장로들을 인터뷰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의회가 끝나고 몇 시간 뒤인 오후 6시에 ECO교단 주관으로 필그림교회 이수천 전도사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안수식은 ECO 부총회장 사회로 양춘길 목사가 설교했다. ECO 안수위원장 등이 안수식을 인도했으며,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이었던 김득해 목사가 권면, 권기현 목사가 축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샬롯장로교회 6개월 전부터 임직준비훈련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오는 8월 27일 설립 40주년 기념 임직식을 위한 임직 준비훈련을 매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고 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훈련을 지도하는 나성균 목사는 "지도자반으로 계속된 훈련은 신앙 기초 확고인도로부터 시작해 5가지 확신과 신앙성숙, 전도 위주의 활성화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리더과정 그리고 신규약 성경 각책의 내용 섭렵, 마지막으로 교단의 특성과 장로와 임직 원리, 당회운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로의 책임인 목사 청빙의 절차까지 공부하고 준비함으로 교인의 대표요 치리 장로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훈련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임직식 외에 기념행사와 담임목사 성역 40주년 감사예배도 드리게 된다. 또 행사와 함께 이전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 생활했던 교우들을 모두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로 다시 한번 연합하며 교제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엘살바도르 뽀뜨레리오스 초등학교를 방문해 복음전도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7 단기선교 엘살바도르 향영진 선교사 사역지 방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엘살바도르 단기선교를 다녀왔다[선교보고 문]. 이번 선교팀은 유상열 목사, 김인환 장로, 박진하 목사, 전희수 목사 등 4명으로 이번 사역은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환영행사 및 선물증정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아동 및 부모들을 위한 전도집회 △가정방문 및 선물전달(아동 및 성인교인) △현지인 교회방문 및 선물전달(환영진 선교사를 통해 건축된 광야기적중앙교회) △현지인교회 개척을 돕기 위한 노방전도(뽀넬립 페 마을) △학교방문 및 선물전달(뽀뜨레리오스 공립초등학교와 뽀뜨레리오스 분교).

엘살바도르 선교센터의 향영진 황은숙 선교사 부부는 뉴욕의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하다 정년을 10년 앞두고 조기은퇴하고 2015년 4월 중남미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떠났다. 이번 기아대책팀이 방문한 곳은 공황에서 4시간, 도시에서는 2시간이 걸리는 가난한 산간마을 뽀뜨레리오스다. 향영진 선교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클래스, 태권도 교실, 축구와 탁구 교실, 합창과 연주 등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 방과후학교 등 교육선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2개의 현지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이번 여름에 엘살바도르 방문선교뿐 아니라 파테말라 장경순 선교사 지원선교를 보인다. 지원 선교는 부뚜막과 화장실 개선 사업이다. 다음은 전희수 사무총장이 보내 온 엘살바도르 단기선교 보고를 게재한다. <유원정 기자>

첫째 날 오후에는 아동 청년 성인이 참석한 성령 충만한 전도 집회로 선교센터 현지인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되어 환영인사 유상열 목사, 기도 하인환 장로, 말씀 박진하 목사, 복음제시 영접기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설교에서 박진하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기를 강조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 믿음이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전했다. 이어서 복음주머니 전도로 전희수 목사가 황금색(천국), 검정색(죄), 빨간색(예수의 피), 흰색(죄씻음), 초록색(생명)으로 전하며 참석했던 모든 현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이연으로 화답하며 가졌다. 전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현상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가정방문

"디오스 데 벤디가" 축복의 말로 인사하며 가정들을 심방하여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선물을 전했다.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배로 나카(다리 아픈 성도), 마리아(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아라셀리(24살 미혼모, 미국의 친정엄마한테 가기를 원함), 마셀리아(불신자로 복음전도), 앙헬라(복음전도, 아메니도(아기 건강을 위해), 브리니도(리벨(할머니와 외손녀에게 복음), 에도, 브라아, 베네니스(산드리아, 옥티비아(복음전도), 칼로스와 엠마(6년전 사고로 실명된 24살 된 청년 칼로스와 다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신발이 없는 칼로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노년에 홀로 사는 프란시스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곳에는 어두움과 가난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삶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영혼구원 사역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16면으로 계속>

목양칼럼

<4면에서 계속>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영주는 이른 날 아침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불렀다. 그때 츠빙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루터에게 다가 형제로서의 손을 내밀었다. 비록 비본질적인 성찬론의 해석이 다르더라도 15개 항중에서 14개의 본질적 항목에서 일치점을 보았으니 성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이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부자적인 점들의 차이를 감내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루터는 눈물을 흘리며 내민 츠빙글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루터는 결연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왜 그리 편협했을까 싶다. 그 결과 츠빙글리는 가톨릭의 공격을 받아 47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고, 루터는 칼스의 공격으로 종교개혁의 본거지인 색소니(saxony)를 빼앗겼다. 후에 로이드 존스는 루터파와 개척파 사이의 분쟁이 로마가톨릭의 모든 천동 비락이 합한 것보다 더 큰 해를 참종교에 끼쳤다고 술회했다. 루터파 신학자인 브릴리요(Yngve Briilioth 1891-1959)는 루터가 수도회 생활과 라틴 전례형태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루터는 죽기 전에 칼빈이 쓴 주님의 성만찬에 대한 짧은 글을 읽고 멜란히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너무 지나쳤다고 술회했다. 칼빈은 선배인 루터를 존경했고, 루터파와 개척파의 연합을 위해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적 임재설을 내놓았다. 그리고 450년이 지난 1973년 로이엔베르크에서 개혁주의자들과 루터파는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그 의미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합의하기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사실 동방정교회와 가톨릭도 아주 작은 문제로 갈라졌다. 진리의 문제보다는 자존심의 문제로...

교황의 파문은 독일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 실력자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교황청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발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 만약 마음이 달라진다면 루터는 화형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잔 후스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예민함으로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같이 찾아오는 동지들이 3-40명이 되었으니 돕는 사람도 없는 정황에서 그 뒷바라지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아내는 귀족 출신의 수녀이었는데 루터가 수도원에서 탈출시 1793년 로이엔베르크에서 개혁주의자들과 루터파는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그 의미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합의하기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사실 동방정교회와 가톨릭도 아주 작은 문제로 갈라졌다. 진리의 문제보다는 자존심의 문제로...

교황의 파문은 독일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 실력자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교황청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발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 만약 마음이 달라진다면 루터는 화형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잔 후스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예민함으로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같이 찾아오는 동지들이 3-40명이 되었으니 돕는 사람도 없는 정황에서 그 뒷바라지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아내는 귀족 출신의 수녀이었는데 루터가 수도원에서 탈출시 1793년 로이엔베르크에서 개혁주의자들과 루터파는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그 의미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합의하기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사실 동방정교회와 가톨릭도 아주 작은 문제로 갈라졌다. 진리의 문제보다는 자존심의 문제로...

일하면서 남편을 후원하여야 했으니 어찌 그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까 싶다. 거기다가 농민 전쟁에서 자신들을 돕지 않았다고 돌아서버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 위대한 리더가 짊어져야 하는 비겁기만 한 무거운 짐, 그 짐을 지고 비척거리면서 진리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갔던 말린 루터, 그가 걸어간 진리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의 고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은 그에게 진빛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붙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사람의 영적 리더인 말린 루터, 그가 중세의 영적 캄캄함 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오직 믿음(Sola fide)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chiesadiroma@daum.net

한 사람의 영적 리더인 말린 루터, 그가 중세의 영적 캄캄함 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오직 믿음(Sola fide)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chiesadiroma@daum.net

엘살바도르 선교사역은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향영진 황은숙 선교사 부부가 지난 2년반 동안 선교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선교센터로 사역중 하나인 방과후학교 아동들과 함께 환영하며 격려하며 선물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유원정 기자>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사역

엘살바도르 선교사역은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향영진 황은숙 선교사 부부가 지난 2년반 동안 선교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선교센터로 사역중 하나인 방과후학교 아동들과 함께 환영하며 격려하며 선물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for: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랑교회, 뉴욕셋세마네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주비전교회, 린즈장로교회, 퀸즈인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어르신들에 '사랑의 점심식사'

방주교회, 7년전 시작 지역봉사 함께

방주교회(담임 김영국 목사)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점심식사' 행사가 8월에는 광복 72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10일 오전 10시30분 루터란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예배와 광복절기념행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앞서 설교를 담당한 이유수 목사는 '아름다운 노년'(고후4:16-1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의 자식도 친구도 영원히 의지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외로움과 고독이 물려올 때면 오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천국에 멋있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



방주교회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점심 행사에 앞서 광복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고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안겨주었다.

이어 진행된 광복절 행사에서 참석한 모든 이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합창한 뒤 대한민국 만세를 삼

창하며 광복의 기쁨을 재연했다.

이날 준비된 점심은 미주성실동 문화가 후원하고 방주교회 성도들이 준비했으며 맛있는 케이크 선물로 전달됐다. 한편 순서지에 성경귀

(이성자 기자)



충현선교교회 설립32주년 기념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권연경목사

'말씀으로 배우는 거룩한 믿음' 권연경 목사초청

충현선교교회 교회설립 32주년기념 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를 설립 32주년을 맞아 권연경 목사를 초청, '말씀으로 배우는 거룩한 믿음'이란 주제아래 8월 10일부터 나흘간 부흥회를 개최했다.

10일 저녁 첫 집회는 민종기 목사 사회로 Sol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돼 김중경 목사 기도, 권연경 목사 설교, 민종기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민종기 목사는 "32년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자라고 믿음이 성숙케 하심을 감사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단애 오른 권연경 목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마5:17-20)이란 제목으로 말씀에서 마태복음에 23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하나하나 들어 설명하고, 이들의 의와 하나님에 인정하시는 의의 차이점을 전했다.

권 목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 핵심은 위선이었다. 말은 잘하나 행동이 없던 것이다. 우리 속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하

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을 갖춰야 한다. 위선자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실제 모습을 보고 거룩함을 실제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자"고 강조했다.

부흥집회 동안 권연경 목사는 '산위에 세운동네'(마5:13-16),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롬4:17-25),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엡2:1-10), '조건 없는 은총의 혁명'(고전1:26-31),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롬5:21, 마18:23-25)의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권연경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교수로 기독교연구원 스펀디미 연구원으로 섬기고 있다.

한편 충현선교교회는 13일 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구(한미경) 선교사 쿠바 재 파송식도 가졌다.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사랑의 책가방 300개 전달에 앞서 기념촬영

사랑의 책가방 300개 전달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한인사회 후원으로 사랑의 책가방 300개를 9월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산하 APP(Asian Pacific Project) 유닛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은행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가방을 옮기는 작업을 도왔으며 이 가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인 위탁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

이다. 사랑의 책가방 전달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행사로 이 일을 맡고 있는 카니정조 소장은 "이 사랑의 책가방 캠페인에 동참해준 한미은행을 비롯해 약국, 식당을 운영 하는 한인사업주들의 손길에 감사한다"며 이 행사로 "위탁가정 아이들의 희망찬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을타리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기금모금 음악회 성황리에 열렸다 (기사 9면)

서부교회게 게시판



감사한인교회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부흥성회를 24일(목)부터 27일(주)까지 "그리스도인 큰 용사"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지용수 목사(장원양곡교회담임)이며, 일정은 24일(목) 저녁 7시30분, 25일(금) 새벽 5시15분, 저녁 7시30분, 26일(토) 새벽 5시45분, 저녁 7시30분, 주일(1, 2, 3부).

▲문의: (714)521-0991

시각장애인 개인수술등기 자선음악회

제7회 실로암 안과병원 시각장애인 개인수술등기 자선음악회가 27일(주) 오후 5시 주일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10)755-8303

2017 미주서부노회 친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서부노회(노회장 정종섭 목사)는 2017 미주서부노회 친목회를 21일(월) 오전 10시 버두고파크(621 Canada Blvd, Glendale,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380-0707, (213)392-2883

찬양대 지휘자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본 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지휘자를 청빙한다. 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추천서 등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4)893-1652

유초등부 사역자 모집

토렌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는 유초등부를 담당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종언어가 가능하고 복음주의 신학교 재학 및 졸업자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이메일(nkgk1986@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310)989-4381



크리스찬 문인 협회 제31회 신인등단 시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시부문 이용언, 수필 이결남 수상

미주크리스찬문협 제31회 신인등단 시상식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는 제 31회 신인등단 시상식을 지난 7월 29일 로텍스 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시부문 신인등단작에 이용언 씨의 '국경지대', 수필 당선작에 이결남 씨의 '홍순이와 팔순이'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1부 예배, 2부 행사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송종록 부회장 인도로 시작, 김형권 목사 기도, 남석훈 목사(한민족동포재단 대표), 송금

관 목사 말씀, 방동섭 목사가 축도했다. 2부 행사는 이동녕 분회 이사사회로 시작, 정지윤 회장이 인사 및 심사과정 결과보고했으며 작곡심사평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용언 시인의 '국경지대' 낭송이 있었으며 시상식, 신인수상자인사, 남석훈 목사 축하송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은 참석자들이 '고향의 봄'을 부른뒤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은행: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기도회: 오전 6:30 EM, 대학: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주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후 1:20 영어예배(월-토): 오전 9:0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동성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tk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통속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황 태스 경환),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령강령예배: 오전 9:15, 11:30 임어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Rd., La Habra, CA 90631</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h3>얼비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월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6: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령: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가대: 365일 24시간 온</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St.,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한미)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강령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310)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p> <p>www.socals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per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aco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진촌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청년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10:00</p> <p>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p>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저지”

한국내 기독교계 총력

국회 개헌특위가 최근 개헌안에 '성평등' 항목 신설을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17일 최종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자 포항과 서울 등 국내 기독교계가 총력저지에 나섰다.

△포항교계, 전 교인 서명운동 돌입=포항목회자총리클럽(회장 이인호)과 건강한 가정지킴이 범 시민연대와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시계탑 앞과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 중앙상가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데 이어 지역 40여개 교회의 15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 참여를 독려한다.

포항목회자총리클럽 회원들이 최근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원호 포항목회자총리클럽 회장(전 육군 준중장·언론인총리클럽 지도모사)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에이즈 창궐, 가정 붕괴,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 출산급감, 군 전투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국내 1500만 크리스트들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43개 대학생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개정 반대’=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동대 등 43개 대학 학생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평등·평등 등 1남 1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표현을 헌법에 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은샘(20·경희대 1년) 씨는 “현행 헌법은 1남1녀의 결혼을 뜻하는 ‘양성(sex)’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으로 못 박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성’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바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향(29·한동대 4년) 씨는 “서구사회에서 밀려오는 동성혼 합법화의 흐름 앞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알리기 위해서 대학청년 연대를 결성하고 언론, 정치, 교

육계 등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 전 전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독재 경험할 것”=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는 “만약 헌법개정 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독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동성 간 성행위를 비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당하기 전에 청년들이 앞장서 헌법개정의 심각성과 독재성을 대학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동성애 범죄화한 나라, 성경을 불법화시켜”=김선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 서기)는 한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동성애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에까지 들어가려고 한다. 심각하다. 미국과 서구 유럽이 동성애를 범죄화함으로써 그 폐해가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넘어 동성애를 죄라하는 성경을 불법화시켰다. 기독교회를 불법단체로 전락시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동성애와 동성혼 입법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 개념 삭제하면 헌법 가치·목적 상당 훼손”=심만섭 목사(화평교회)는 “인권위는 현행 헌법 제32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양성(兩性)’의 개념을 삭제하므로 어떤 성적 결합에서도 결혼이 가능케 하는 결혼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 동성혼, 다자간 혼인 등에 문을 열어놓겠다는 심산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 줄 헌법의 가치와 목적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말했다.

△“동성애 허용한 나라, 군 전투력 약화 불러”=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현재 세계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

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제3의 성이 도입되고 다중혼 합법화가 추진되고(근친상간, 소아성애, 일부처, 로보성애, 수간 결혼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교회 내에서 동성애 금지 설교를 했는지를 검사하고 군 동성애로 인해 군 전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17일 ‘성평등’ 항목 신설여부 결정=김원평 대표변호사는 “만약 헌법개정 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독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동성 간 성행위를 비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당하기 전에 청년들이 앞장서 헌법개정의 심각성과 독재성을 대학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동성변역 “교계 힘 모아 달라”…교수, 시위·단식투쟁 돌입=길 운영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해당 사무소를 찾아 실상을 알려 달라”고 호소 한 뒤 “2000명 이상 서명한 전국 교수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17일부터는 교수들이 일일시위와 단식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동성혼 반대 분명히 했다”=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삼일교문)는 최근 해오름교회에서 전국 광역·시·도·시·군의 대표회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철회운동 등 그동안 성과를 소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교인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서구 유럽 전철 밟을 것”=교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한국교회들이 에브라임지파처럼 이 거룩한 진리수호의 동성애 전쟁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다”며 “힘써 싸우지 않은 결과는 서구 유

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들은 무너지고 쇠락하여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는 것이 용기이며 지혜이며 믿음이며 승리의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성애 후유증 심각…에이즈 창궐·세금폭탄 우려=한편 한국에서는 90년대 초 에이즈의 절대적인 감염경로인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를 철저히 교육시켰다. 그 결과 90년 후반까지 에이즈 연간 발생자가 100여명 이하였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99년부터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경고 사라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미화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

연대별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 현황에 따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만3909명으로 증가했다. 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10%는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역제도의 1년간 1인당 약값만 3600만원) 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4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의 그간 동성애를 위한 활동을 보면, 2003년에는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으며, 2005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했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를 권고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상영하도록 권고했다.

2010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으며, 2014년에는 초·중·고교,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제한된다.

이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고 양성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원평(경희대 가정의학) 김준명(연세대 내과학) 길원평(부산대 물리학) 제양규(한동대 기계제어공학) 교수 등은 “개헌 반대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항의방문과 단식투쟁, 1인 시위 등으로 헌법개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 경우, 전국 6개 권역별로 목회자와 실무자 등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이미 마친 상태다.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 전문위원인 김진호 장로는 8일 “정부가 과세 방침을 밝히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계 내부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은 별도의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한기연 16일 출범도 흔들리나...

한교총-한교연, 통합 정관 이견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지난달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출범을 약속했지만 합의 정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오는 16일 출범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관개정 작업에서 한교연이 기존 대표회장과 전 대표회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통합조직인 한기연의 지도부를 ‘7·7정관을 기본으로 하되 1000개 교회 이상 교단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단을 구성하여 5년간 대표를 추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교연은 현행 대표회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직 총회장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총회장을 역임한 인사까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교연은 또 임원회에 주요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군소교단 총회장은 물론 40여명의 법인이사까지 포함시켜 80-100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건전한 교단을 이끄는 현직 총회장 중심의 리더십 체제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다.

한교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표회장을 역임한 인사들로 원로회의를 만들어 대표회장이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교연 현직 대표회장이 전임 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았던 옥상옥(屋主) 구조를 또 고집하는 것이

다. 교단이 아닌 단체에도 상임공동회장단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한교연의 이런 행보에 한교총을 이끌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총무들은 “한교연이 현직 교단장 중심의 운영, 교단중심의 연합체라는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교연이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한교총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찬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한교연은 임원만 150명이었다”면서 “조직의 권력을 일부에만 집중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자리 안배를 통해) 가능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교연은 오는 11일 한기연 정관을 놓고 논의한다. 한교총을 이끄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4일 모임을 갖고 한기연 정관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며 16일 한기연 출범을 결정한다.

교단장회의에 소속된 모 관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한교총 출범에 브레이크를 걸고 한교연을 설득해 통합을 성사시키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한교총과 한교연의 합의정신이 퇴색되는 현 상황에서 예상통합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2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성’ 수상자 발표

목회자부문 박종화 목사, 평신도부문 김진표 장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성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제12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성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목사), 평신도부문 김진표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다.

수상자 박종화 목사는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 기장총회 총무,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와 대통령 통일교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재단이사, 대화아카데미 이사장,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평화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몰트만’, ‘칼 바르트’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박종화 목사의 기독교인으로서 연합과 일치 사역은 종교를 뛰어넘어

2004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2008 독일연방공화국 십자공로훈장을 수훈했다.

수상자 김진표 장로는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행정대학원을 졸업,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고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17대-20대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경제 교육부총리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한국사회에 기여하였다. 현재 민주당기독교신우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아 의회와 교회를 하나되게 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구현했다.

제 12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성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화) 오후 4시 CCMM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장, 상패가 수여된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동성애 합법화 개헌안 반대”

대학생들 이어 교수 2204명도

대학생들이 이어 교수들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대열에 동참했다. 전국 223개 대학 2204명의 교수들이 ‘기만’ ‘악’ 등의 용어를 써가며 헌법개정으로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반대서명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권익보호를 내세워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을 폐지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려는 시

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에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양성평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성(sex)인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평등은 임의로 선택한 50개 이상의 성(gender)을 뜻한다”면서 “개정 헌법에 성평등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 등 온갖 결합 관계가 헌법에서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 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 따르면 성평등 관련 해외 입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만을 다루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악하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성평등의 의미를 감춘 채 헌법을 만든 후에 성평등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평등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오는 17일 열리는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성평등 조항을 철회하고 현행 헌법처럼 양성평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이 실력행사해 나선 것은 헌법이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는 철저히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유예?

전망도 찬반도 엇갈리는 교계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 과정을 두고 교계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겠느냐’ ‘미흡한 시행 매뉴얼 때문에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엇갈리는 전망이 정부와 정치권, 교계 내부에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교 등 타 종단도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내포된 것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여부나 방식 등을 두고 부담스러운 심경을 애매 모호하게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

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점을 2020년 1월까지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초 주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0명 가까운 의원들로부터 발의안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임정이 엇갈린다. ‘찬성’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이 갈라지면 서 교계 내부의 중론을 모으기가 여의치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

단위 경우, 전국 6개 권역별로 목회자와 실무자 등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이미 마친 상태다.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 전문위원인 김진호 장로는 8일 “정부가 과세 방침을 밝히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계 내부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은 별도의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중이다. 대응책의 골자는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미흡한 시행령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일정기간 늦추자는 것.

과세대책 공동TF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령과 시행 매뉴얼에는 과세 대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 취지와 달리 특정 종단·종파 소속의 일부 종교인들만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점을 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사이버 종교 단체 등이 과세 제도를 악용해 ‘유사종교의 합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고 강조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퀴어축제를 오는 10월28일 개최한다”면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부산성서화운동본부(성서화) 등 지역교계는 시민들의 정서에 여행하는 퀴어축제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영문 부기총 사무총장은 “퀴어축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일 부기총과 성서화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부도덕한 행사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84)

최고의 선교 동원가 존 모트(John R. Mot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시키자!” 이는 1888년 결성된 학생선교 지원자 운동(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표어였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19세기말 20세기초는 세계선교를 향한 황금시대였다. 그 중심에 SVM가 있었다. 본 단체를 통하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SVM 선언에 서명한 후 오대양 육대륙으로 떠났다. 그 숫자가 무려 20,500명이 되었다.

문명이 열악한 시대에 어떻게 이 많은 청년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말인가? 당시 SVM은 선교

2. 존 모트의 선교 헌신

1886년 1월 14일이다. 모트는 이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강사는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스투드(C.T. Studd)였다. “당신을 위해 위대한 것을 찾겠는가? 그것을 구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마6:33). 모트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다. 그는 집회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무엇인가가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동원에 불을 지켰다. 1910년에는 범세계적인 에딘버러 선교대회(Edinburgh Conference)를 주최하여 위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본 대회 때 세계교회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식 메시지에서 모트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강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큰 신뢰와 전능하신 힘에 대한 응답으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탁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나 또는 이 대회의 우리 회원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기독교인 가정,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의무로 지워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적인 덕목들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임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 존 모트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인간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구나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떠한가? 그는 세계선교의 비전 가운데 주의 일꾼들을 일으킨 복음전도자이며 탁월한 선교동원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존 모트는 평신도 선교지도자로서 평생을 쉬지 않고 세계를 위해 힘썼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세상 부귀영화의 길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셨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정부 관료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그는 1946년에는 국제선교 운동에 쌓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존 모트는 1955년 1월 31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생전에 죽음에 대해 “나에게 죽음이란 차를 바꿔 타는 정거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지 않은 평신도였지만 복음 전도자로 선교동원가로 큰 족적을 남긴 영적 거인이다. 후자는 그는 가리켜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 칭하기도 한다.

맺음 말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반드시 인생의 선택이 찾아옵니다. 위축되는 삶이나, 확장되는 삶이나? 작은 규모의 삶이나, 넓은 안목과 보다 큰 포부를 가진 삶이나? 자기만족, 또는 자아추구의 삶이나? 이타적 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나눔의 삶이나? 이 가운데 최선의 선택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눔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SVM 학생자원운동의 주역인 존 R. 모트가 남긴 말이다.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를! 그는 SVM의 이 슬로건에 매인 바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았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말인가?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악해기는 세상과 승부할 제2, 3의 존 모트들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그가 바로 당신이다.

song007@hanmail.net

세계 선교 뉴스

지중해 난민구조활동 중단 국경없는의사회, "안전 우려"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MSF는 “리비아 당국이 불법 난민 단속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활동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MSF의 난민 구조 선박인 ‘프루덴스호’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MSF는 유럽을 향해 도착한 배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건 항해에 나선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중해에서 구조 활동을 펼쳐온 비정부기구(NGO) 9곳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다.

리비아는 최근 자국 영해 주변에 ‘수색·구조’ 구역을 설정하고, NGO 단체들이 운영하는 구조 선박들에게 이 구역에 들어오지 말 것을 통보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해당 구역에 NGO 구조선들이 접근할 경우 경고 실탄을 발사하는 등 공공연한 위협 행위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MSF는 리비아 당국이 자국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으로 이 구역을 임의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SF는 구조선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지만, 다른 NGO들이 운영하는 구조선에서의 MSF 소속 의사들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힝야 돕는 유엔은 테러지원자" 미얀마 불교도 대규모 시위

로힝야족 무장세력이 배후로 지목된 6명의 불교도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불교도들의 반(反)무슬림 정서가 다시 폭발하고 있다.

무려 15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로힝야족 무장단체는 물론 로힝야족을 돕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 구호단체까지 표적이 됐다.

14일 일간 미얀마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서부 라카인주(州)에서는 불교도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라카인주 17개 소도시 가운데 15개 도시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무려 15만여 명의 승려들과 불교도들이 참여해 정부의 '치안 실패'를 성토했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것은 최근 라카인주 마유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3쌍의 살인사건이다. 미얀마군은 당시 숨진 불교도들의 몸에서 총상 등이 발견되자 그 배후로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을 지목하는 한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토벌작전을 진행 중이다.

또 무장한 불교도들은 로힝야족 거주 지역을 에워싼 채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한 조 윈씨는 "라카인주 주민이 죽어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권도술수만 부리지 말고 제법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요구는 단순한 치안 강화보다는 반(反)로힝야 정서에 기울어 있다. 특히 시위대는 로힝야족의 인권보장을 주장하고 구호활동을 벌이는 UNHCR,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최대한 빨리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시민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민병대 조직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또 다른 시위 주도자인 타이 아웅씨는 "구호단체는 하루빨리 라카인주에서 떠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며, 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모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동원가로서 수많은 선교일꾼을 일으켰다. 선교란 소명 받은 곳에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다.

사 파송의 못자리였다. 주목할 것은 그 단체를 이끈 지도자가 바로 존 모트였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동원가로서 독특한 선교적 공헌을 하였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2만명 이상의 젊은 일꾼들이 동원되었을까?

21세기 세계선교! 이대로 가도 좋은가? 100년 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일어섰던 청년들 같은 헌신자들이 지금은 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존 모트가 살아 있다면 가슴을 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역사 속에서 존 모트를 불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꿈과 열정과 역동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

1. 존 모트의 헌신 배경

존 롤리 모트(John Raleigh Mott, 1865년 5월 25일-1955년 1월 31일)는 미국 뉴욕에서 4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성장한 곳은 아이오와주이다. 그가 태어나던 해 9월에 가족이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목재상으로 부유한 편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으며 감리교회에 성립이 출석했다. 그는 매일 신약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젊은 나이에 스스로 훈련을 하며 영적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모트는 16살이 되던 해 아이오와 대학(Upper Iowa University)에 입학해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다. 그는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모트는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후 1885년 가을에 코넬(Cornell) 대학 2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는 그곳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그는 코넬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의 길로 인도되었다.

나는 전에 없던 태도로 구원 얻기를 간구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음을 느꼈다. 나의 마음은 많은 감동적인 사상과 영적 투쟁으로 계속 가득 찼다.”

1886년 여름 존 모트는 복음전도자인 D.L. 무디의 지원으로 매사추세츠 주 헐몬산(Mount Hermon)에서 열린 첫 번째 기독교생 수련회에 참석했다. 집회는 한 달간 열렸고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온 251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모트는 코넬대학교의 대표로 참석한 것이었다. 집회 마지막 날 로버트 윌더가 선교사로 헌신하자는 제안을 했다. 모트는 비롯한 100명의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다(I purpose, God willing,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라는 ‘프린스턴 서약’(Princeton Pledge)에 서명했다. 이 서약은 후에 학생자원자 운동의 기초가 됐다.

3. 존 모트의 사역

존 모트는 대학시절부터 조직력과 리더십이 탁월했다. 그는 2년 간 코넬 대학에서 ‘기독교청년회’(YMCA) 학생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 수를 3배나 증가 시켰다. 그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과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학생자원자 운동은 다양한 교과와 신앙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상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888년에 학생자원자운동(SVM)의 의장이 되어 대학생 선교동원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1890년부터 1939년까지 약 2만5000명의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헌신케 하였다. 또한 모트는 YMCA에서 국제위원회의 학생부와 해외 책임자로(1888-1915) 그 후 세계연맹의 회장(1926-1937)으로 활동했다.

1895년에는 WSCF(World's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전 세계를 누비며 젊은이들의 선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02)749-9929,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501)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45 주일 5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한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앵커리지베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512)542-0288, Fax: (512)54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우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편집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알마티에 세운 알마티퀸즈장로교회가 설립 25주년을 맞았다. 김성국 담임목사와 퀸즈장로교회 선교팀은 지난 6월 중순 현지를 방문해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중앙아시아 5개 지역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아카데미와 현지 사역자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400호에 실린 기념예배 및 세미나 내용을 발췌한 것.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25주년 기념 주일예배가 오전 10시에 드려졌다. 김관중 선교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카작스탄 현지인으로 구성된 호산나 찬양대의 개회송영 후 마하나임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드려졌다. 십계명 교독과 합심기도를 한 후 정길표 장로의 헌신기도, 특별찬양과 성경봉독 이후 김성국 목사의 미가서 7장 7-9절의 말씀 선포로 이어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니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찾음으로 어두움에 이르지 말며, 예수님만이 답이시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다.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며 모든 것을 누리며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구원받고 인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찬송과 헌금 후 단기선교팀의

특송이 있었다. 이후 25년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를 설립하고 후원하는 뉴욕 퀸즈장로교회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김성국 목사와 정길표 장로에게 증정하였고 십수년 단기선교사로 섬긴 설정에 권사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또한 25, 24, 23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온 세 명의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권사들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단기대원을 소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폐회송으로 "살아계신 주" 찬송



기념예배 담임목사님 설교

후 김성국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에서도 다민족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한인, 고려인, 카작스탄인, 카작스탄 장애우들이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현지인 중에서는 국가공용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성도들과 민족어인 카자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설교를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면 러시아 수화와 카자수화로 다시 전달한다. 25년전 설립 때부터 다민족예배를 드려온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와 현재 다민족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두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라웠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배 순서 중간에 1)교회와 성도 2)가정과 직

장 3)나라와 민족 4)건축 축복 5)한 영혼구원 6)소원 합심기도가 있었다.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것에 익숙하며 예배 후 마주치는 순간마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품고 "미르밤~!"을 외치며 께안아주는 성도들로 인해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주일이 되었다. 민족과 언어를 넘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특별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에 드려진 설립감사 찬양 예배에는 단기선교팀을 포함 남녀 구역, 교육부, 찬양팀, 찬양대별로 10팀이 참가하였다. 수화 찬양팀도 수화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며 찬양을 올려드렸다. 설립 감사 예배와 찬양 예배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교회인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중앙아시아 목회아카데미 & 현지 사역자 전도 세미나

2017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중앙아시아 목회 아카데미와 현지 사역자 전도 세미나가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카작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 리더들을 위한 훈련 및 양육 세미나로 키르기스탄에서 24년간 사역 중인 김기호 선교사의 헌신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퀸즈장로교회와 알마티 퀸즈장로교회가 후원, 김성국 담임목사를 강사로 '전도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당일 오후 2시 알마티 인근을 비롯해 10시간이 넘게 걸려 각 지역에서 온 80여명의 참가자들이 등록을 마친 후 찬양과 기도도 첫 시간을 열고 3차례의 강사가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첫 강의는 '개혁주의와 복음전도'로 개혁주의란 어떤 신학인가? 개혁주의의 구원론(TULIP) 등이

다루어졌고 퀸즈장로교회의 개혁의 방법인 다민족전도로 길거리 전도 영상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주님의 전도계획' 강의가 이어졌다. 첫날 마지막 강의는 정길표 장로의 간증. 평신도 사역자로의 복음과 선교적 삶을 사시는 모습을 나누며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이어진 뜨거운 찬양과 합심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첫날 세미나를 마쳤다. 둘째 날 오전 강의를 통해 도시의 장단점을 살피며 도시에 대한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고 본교회 전도폭발 위원장 최원일 집사의 전도폭발 강연과 복음제시 시범을 통해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소개했다. 오후 강의는 팀켈러 목사의 저서 '센터치치'를 소개하며 '복음신학, 복음의 상황화'로 신학적 비전과 도시 상황화를 전했다. 모든 사역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

고 말씀을 프로그램화해서는 안되며 모든 상황화 속에서 성경의 진리는 단 하나임을 강의하였다. 말씀에서 출발하는 비전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역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둘째 날 저녁 마지막 강의 후 김성국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를 하며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셋째 날 오전 2차례의 강의와 폐회예배는 '센터치치-선교적 공동체, 사역의 역동화' 강의와 함께 퀸즈장로교회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설명과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중국어, 러시아어 예배부의 영상소개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도전과 감명을 주었다. 또한 개인별, 교회별로 자신의 신학적 비전을 그려 보라는 과제로 그룹토의하며 열린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세미나 폐회예배는 김기호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김성국 목사가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세미나단체사진

을 통해 '복을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사명과 뜻을 찾아야 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이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하며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임을 전했다. 이후 각 교회별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각 교회들은 늦은 밤 강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서도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자기 자신과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

고,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신학적 비전으로 재해석하며 사역자와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국 목사는 시편1:1 '복 있는 사람은'과 시편 150: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말씀을 마치고 지역별, 교회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 세미나를 마쳤다. 10분 만에 준비된 즉석 찬양제를 통해 각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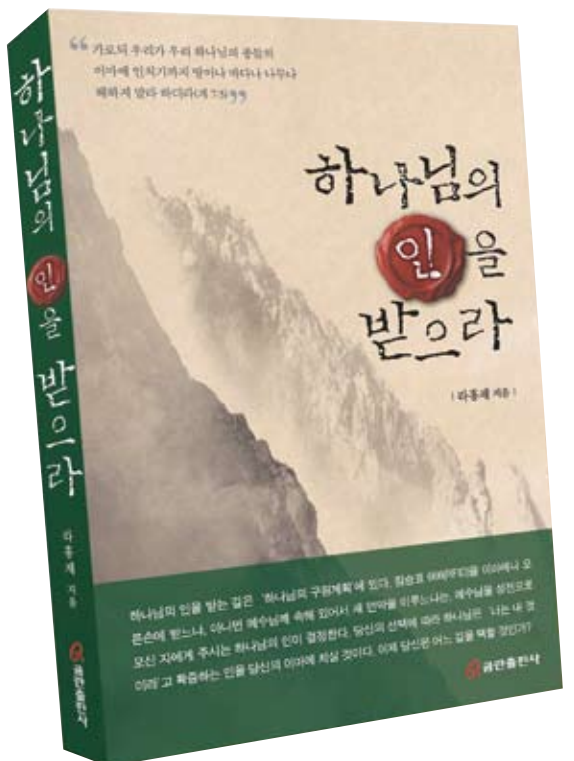
과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열복 수 있었다. 첫날 세미나로 시작된 목회자 아카데미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부흥집회와 찬양제로 막을 내렸다. 기념촬영과 점심 식사 후 각 지역별로 세미나 현장을 떠나는 목회자와 사역자, 리더들의 상기된 모습에서 세미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2017 중앙아시아 목회 아카데미가 갖는 의미를 더욱 새롭게 했을 뿐 아니라 알마티 퀸즈장로교회가 중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5개 지역을 섬기는 선교센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신학적 비전을 세우고 견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사역에 퀸즈장로교회와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를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교회들이 각 처에서 전도와 선교,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것을 기대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고개혁 500주년 (7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항상 죄로 인해 두려워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하는 일종의 영적 압박감이 있었다. 이 독특한 감정을 독일어로 Anfechtung이라고 부른다. '두려움' 또는 '영적 고통'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루터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오해는 그가 정신병자였다는 것이다. 정신 쇠약은 물론 정신분열 환자였다는 견해도 있다. 루터의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겉모습만 보면 충분히 이런 판단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가 가졌던 '영적 고통'이 실제적이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적으로 민감하였던 그는 언제나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었다. '영적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울릴 뿐이었다. 그가 예르푸르트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영적 고통'을 거부할 어떤 방법도 없었다. 루터의 '영적 고통'은 그의 실존 자체를 흔들놓는 위기였다.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신학적 갈등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루터의 고해성사 신부로서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순수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영적 고통'을 이겨내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어거스틴의 글을 읽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1510년에는 루터를 로마로 순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더욱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할 것을 권한 것이다. 루터의 '영적 고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영적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려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그가 죄를 짓는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9)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23)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 그리고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인 기독교교육이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 그 마지막 이슈로서 “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 (Failure in the Public Education of the States)”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는 공교육의 실패를 “기본적 학업력 성취의 실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실패”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패와 상호작용

그 원 의도를 잃어가면서 엘리트주의 교육의 모습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흘러온 전통주의 교육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교육의 모습, 원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금 새롭게 발전된 교육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제시된 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주의” 교육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트주의 등의 모습으로 왜곡되기 이전의 전통주의 교육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적인 측면들을 그 교육의 내용과 가치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기독교 전통주의” 역시 바로 이점을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의 전통주의 교육이 기독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일 등을 열심을 가지고 행해왔다면, 기독교 전통

달란트를 충만한 지경까지 발전시킨다는 성경적 진리를 통해 탄탄한 학업력을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서 “기본적 학업력 성취”에 공헌을 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세월을 따라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다양한 교육 방법과 혁신적인 시도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취사선택하여 교육을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고한 성경적 관점(하나님은 어느 한 부류의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 등)을 적용하여 전통주의의 약점인 엘리트주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전통주의 교육은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적 가치 (사랑과 평등과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로서의 삶)를 뒤늦고 깨어진 우리사회의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로 흘러버린 전통주의교육의 성경적 통합 회복해야 개혁 담보할 대안적 동력으로 기독교전통주의교육 강력 제시

을 해온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 재구성주의 교육, 실존주의 교육, 이러한 실존주의에 반하여 대두된 행동주의 교육 모델,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본적 학업력 성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교육 모델, 즉 “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the Public Education of the States)”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 모델로서 “기독교 전통주의(Christian Traditionalism)” 교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주의(Christian Traditionalism)” 교육은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전통주의 교육(Traditional schooling/education)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왔던 전통주의 교육은 로마카톨릭, 루터당, 그리고 복음주의 쪽 교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 이해해 본다면 사실 전통주의 교육 자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통주의 교육은 애초부터 “기독교” 전통주의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특별히 앞에 두고, “기독교 전통주의” 교육 모델을 미국 공교육 실패의 대안으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전통주의 교육은 점점

주의 교육은 이에 더하여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적인 측면들이 과연 바른 통찰과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심도 깊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성경적 통합(Biblical Integration)”이라는 교육 가치를 전면에 배치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Biblical Integration)”이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모든 교과목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가르치며, 방법적 측면에서 성경적 가르침에 합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관계적 측면에서도 성경적 진리에 합하는 방식으로 학생들과 관계 맺고 훈육하는 교육의 모습을 성경적 통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통합이라는 것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주의 교육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적인 측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경적 통합의 가치와 실천을 통해서 공교육의 실패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 사학들, 즉 공교육을 떠난 소위 기독교 사립학교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모습으로 이러한 기독교 전통주의 교육을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주의는 기존의 전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즉 모든 학생들의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이 일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또한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하나의 연합체를 세웠습니다. 이는 기독교학교국제연맹(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인데, 한국의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이 단체와 뜻을 같이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교육적 사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우리 자녀들을 모두 기독교 전통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 학교들에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코 비판적 관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교육적 가치를 분별하고 또한 그 실행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일단 기도와 고민과 분석과 분별의 과정이 끝나서, 만일 기독교 전통주의의 교육 가치와 그 실천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교육이 실패한 부분들 즉 “기본적 학업력 성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를 회복하는 사명에 이러한 기독교 전통주의 학교들의 연합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천부장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삼하18:1)

하나님께서는 안팎으로 많은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살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계속 도망가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러서는 전혀 상상 못했던 세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아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난 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심으

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세력을 나눠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 나가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충성된 사람들이 충성되어 전장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삼하18:2)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몇천명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충성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도자를 잘 통솔했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도 백

성들과 함께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 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수 왕은 나가지 마소서(삼하18:3-4)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다윗 왕에게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왕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가 모두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암살품의 군대들이 벌 때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전쟁에 앞서서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우리는 목자 없

는 양같이 우리도 방황하다가 전쟁에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철저히 사랑으로 보호하는 백성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교역자와 성도로 하나님 것을 합쳐 지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리더들은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리더들을 사랑으로 보호합니다.

목 암살품을 너그러이 대접하라(삼하18:5-8)

아버지 다윗왕의 사랑을 받았던 암살품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승리해 확인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암살품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다윗은 이미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

루셔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암살품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소년 암살품”이란 아직 미성숙한 아이가 용이 없어 시 몰리라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하되 사람과 원수를 지지 않고 용서하며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까?

금 암살품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삼하18:9-10)

오늘 우리는 암살품의 최후를 보면서 성도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살품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그의 머리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살품의 머리털이 암살품에 있어서의 최대의 자랑거리요 자신의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삼하 14:15,16). 성도는 나에게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과 권세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던 암살품은 그 머리털이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노새”를 탔다고 했는데 노새는 왕만이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입니다. 그런데 암살품은 처음부터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왕 행세를 했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토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하18:11-15)

성도는 늘 겸손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암살품의 최후를 보면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요압의 불순종입니다. 다윗은 암살품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은 지체하지 않

고 암살품을 창으로 찌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은 다윗왕을 또한 번 슬프게 한 것입니다. 요압은 평생에 다윗 앞에서 용맹한 장군으로 큰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지만 평생에 다윗왕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요압은 결국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순종하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82)-2643-8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490-7000, Fax: (8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침은이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6:30 Tel: (82)-2646-3181-3, (8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16-3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옥수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길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www.shinch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안암시도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하)

[역자 주: 본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행하는 "FORUM"(Volume 24, Number 1: Spring 2017)에 실린 글을 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것이다.]



역자: 임지석 목사

5.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은 종교개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정확히 말해서 당시 로마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의 가르침은 실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벗어나 구원을 추구하고 중보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조금씩 빼앗아 갔다.

이를 들어 교회는 믿는 자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요 17:22-24). 실제로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영광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롬 8:21).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성별하는 사람은 곧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롬 8:30).

우리에게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롬1:21).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을 위해서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심판과 구원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롬3:7; 10:12-13).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예수께서 혼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듯이 "인자의 아들이 영광을

(10명에서 계속) 또한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주님을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현지인 교회 방문

황영진 선교사님을 통해 후원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광야기적중 앙교회(나프탈리 목사는)는 목사는 설교만 담당하고 60여명의 성도들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성장하는 현지인 교회이다.

처음 시작한 선교센터 사역도 벽찬 상태에서도 현지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건축되어진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엘살바도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낌없는 황 선교사 부

시다.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생명이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복음을 전했다.

노방전도 계획을 노방전도 집회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싼벨리페 마을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또한 성전이 지어질 땅을 바라보면서 영혼구원을 위해 성전건축이 속히 되기를 기도했다.

미동부국제기대채기구 2017년 단기선교 일정은 3박4일이었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는 실질적으로 3박5일의 일정이었다. 첫날은 한잔을 못자고 일정이 시작되었다. 엘살바도르 저지대에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철로 땀으로 옷을 적시며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 앞에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3일간 아침 경건예배를 통해 뜨겁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사역보고를 마치면서

사역을 마치면서 황영진 선교사는 이사가 41:10 말씀은 목사안수를 받을 때 주신 말씀이며 이곳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지난 2년 반 동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했다.

또한 35분밖에 재정이 없었을 때 조지 물리의 기도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 황영진 선교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선교사역에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황은숙 사모의 정확한 선교보고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2년 반의 짧은 기간 동안 엘



부의 섬김과 헌신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현지인교회 개척을 돕기 위한 노방전도

하얀 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로 달경던 30분쯤 가면 교회가 없는 가난한 마을 싼벨리페 마을이 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길가에서 의자 몇 개 펼쳐놓고 아이들과 어른 15여 명이 모여 전도예배를 드리던 곳이다. 황 선교사님의 계획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노방전도로 나갔는데, 예상외로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들어 노방전도가 아니고 노방 전도집회로 전국복음을 전하는 현상이 되었다.

현지인들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어 선교팀의 종신 하나님의 특별찬양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유상열 목사가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영접기도를 드렸다.

유상열 목사는 요한복음 10:10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은 인류역사 속에 기억되는 여러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인류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현지인 학교 방문

쁘레리리요스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운동기구와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디오스 데 벤디가"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 또한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거리가 멀어서 본교에 못가는 학생들을 위한 분교에도 방문하여 25명의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운동기구와 선물을 전했다.

현지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표정은 밝고 누구든지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아동들을 보면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듯하여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게 했다.

저 밝고 맑은 표정 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는 생명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 교장과 모든 교사들이 천주교 신자이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 선교사와 달리 선교팀의 섬김을 위해 학교 문을 열어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침 경건예배

인 교회건축 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박쥐가 날아다니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기동만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로 선교센터를 예쁘게 장식하고 주일에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터전이 되었다.

황영진 선교사는 미동부국제기대채기구 2대 회장과 이사장으로 섬겼던 것이 선교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선교 일정에서 함께 차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현지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황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보이는 열정과 긍정의 힘이 영혼구원을 위한 열매로 엘살바도르 땅에 열매 맺기를 믿고 기도한다.

미동부국제기대채기구 2017년 엘살바도르 단기선교를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교황권과 로마교회 권력구조는 하나님의 신용과 구원에 대한 영광 가로채 인간에게 모든 선한 일에 의존하려는 혼란 야기 과학은 창조의 영광에 대단한 지식 제공하나 하나님께 찬양도 감사도 안해

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는 성자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는 회개와 방랑생활 또는 교회의 성례에의 참여를 통한 후원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그들의 삶에 그 은혜가 유효한지를 알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 위에 로마교회는 말하기를 교황권과 교회의 권력구조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위임된 영광이라고 말한다.

이것들의 순수한 효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신용과 구원에 대한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류가 모든 선한 일에 의존하려는 것으로서 혼란을 주는 일이다. 확실히 개혁주의자들은 예수가 그의 영광을 믿는 자들을 사랑의 삼위의 교통 가운데 초대함으로 함께 나누

고 한다. 사도 바울이 의미 있게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러진 자는 그분이 다시 갠다"는 말이다.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나타난다.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롬11:35-36).

우리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궁극적인 의무가 그들에게 진정하며 무엇보다 인생에 행복과 성취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신체는 미국의 대법원이 선언했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편협한 인간의 권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심하는 일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영광을 강조할수록 첫째로 그러한 존엄과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이 문제인지 설명하는데 있어서 힘들게 된다. 과학이

받으실 때가 오리라. 분명히 말하거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는 오직 한 알로 남게 된다. 인자가 들리는 날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요12:23-24, 32) 말씀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 영광을 한쪽으로 치워 놓았으며 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고난의 종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골2:9-11).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교회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분석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혜택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가며 그리하여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했다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후4:15)는 것이다.

(by Matthew Tuininga)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